

# 추천시스템 3.0: 딥러닝 후기시대에서 바이어스, 그래프, 그리고 인과관계의 중요성

# CONTENTS

1. 추천시스템 배경
2. Bias Reduction
3. Graph Neural Networks for Recommendation
4. Counterfactual Evaluation

# 1. 추천시스템 배경

# 진화하는 개인화 추천시스템

1997

Collaborative  
Filtering

1단계

2010~

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 
Recurrent Neural Networks

2단계

2017~

Graph Neural Networks

3단계

2006

Netflix Prize  
Hybrid 접근법

2016~

Causal Inference

2020

현재

# 개인화 추천시스템의 세 단계

	추천시스템 1.0	추천시스템 2.0	추천시스템 3.0
데이터 해석력	하	하	상
데이터 크기	하	상	상
계산복잡도	하	상	상

데이터 생성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 
빅데이터 Manipulation이 중요하다

**Positional  
Bias  
Reduction**

**Graph  
Construction**

**From Statistic  
To Causality**

# 적용 서비스: LINE Wallet

# LINE Wallet 탭 구성



LINE Pay

서비스  
바로가기

모듈  
(서로 다른 콘텐츠)

아이템

모듈 예시

Coup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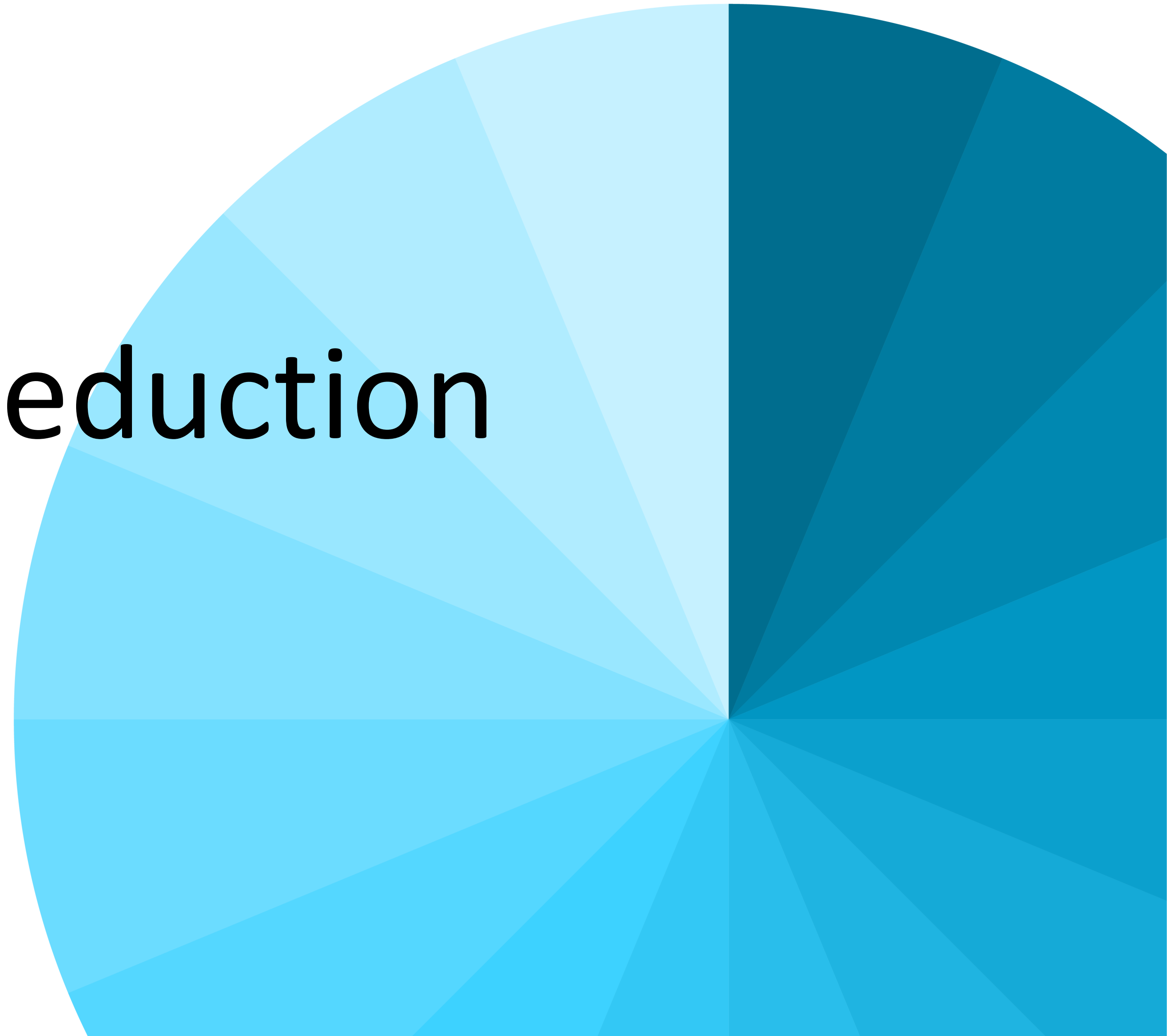
MyCards

Point

Chirashi



# 2. Bias Reduction



# UI추천: 내가 다음에 사용할 모듈은 UI 상단으로 미리 집합!



Prob. of  
next use 95%

Prob. of  
next use 80%

## Four modules

Coupon

MyCard

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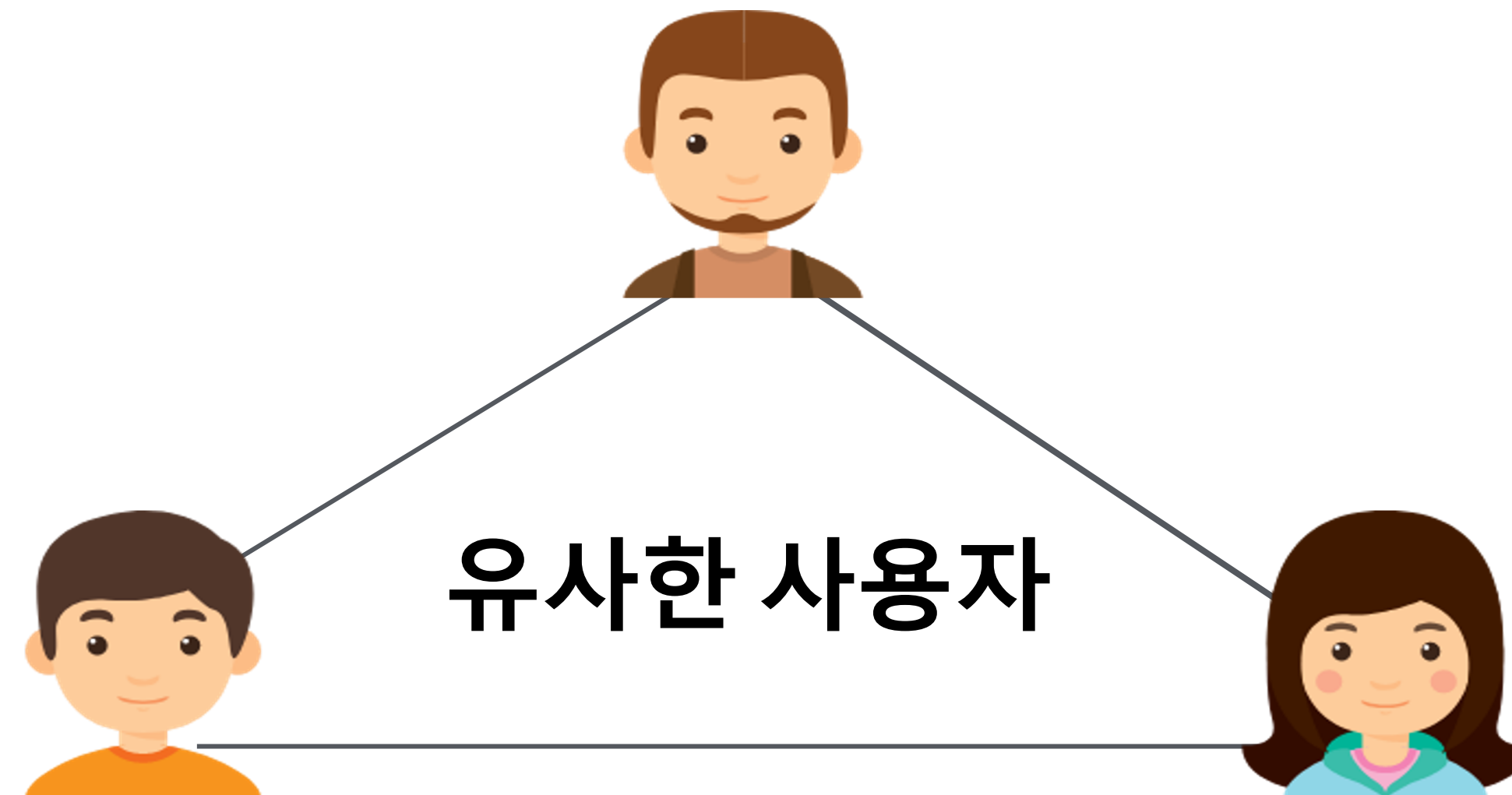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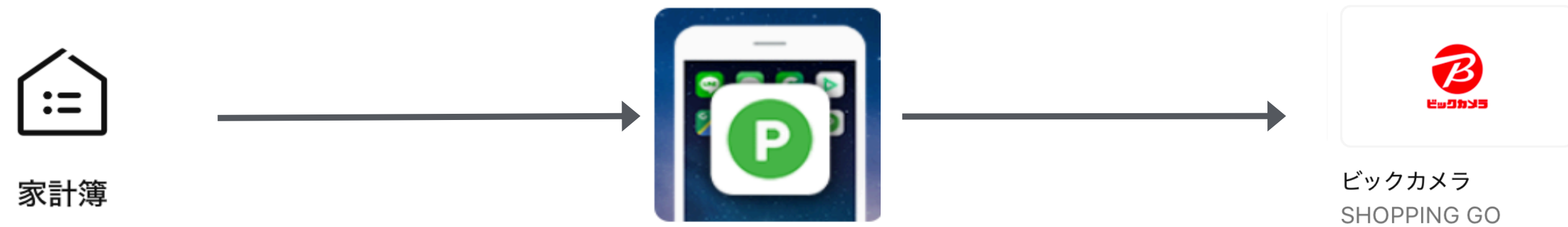
Chirashi

**다음 사용 모듈을 어떻게 예측할까?**  
**- 과거행동기반 예측알고리즘 -**

# 사용자 과거 행동데이터를 모아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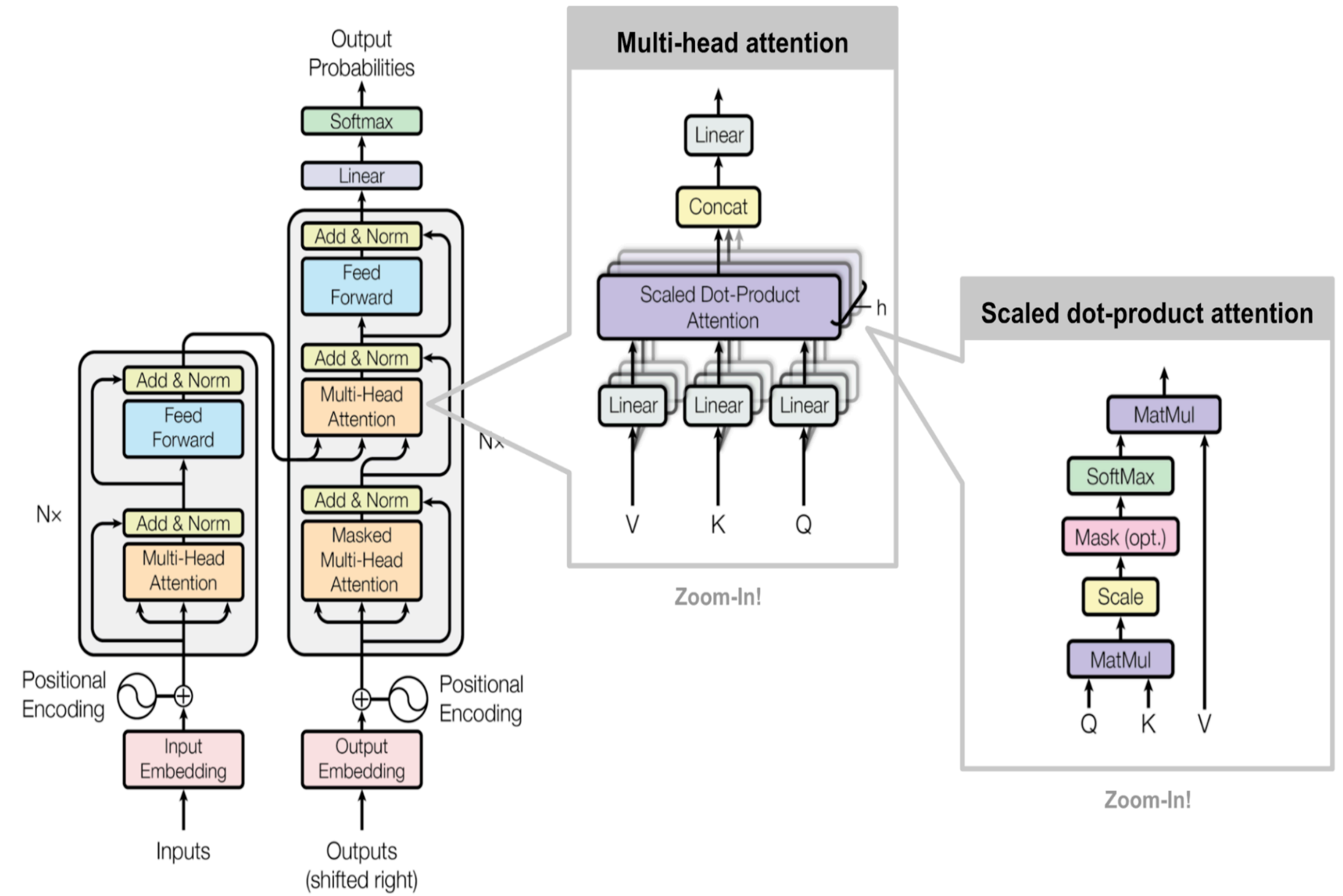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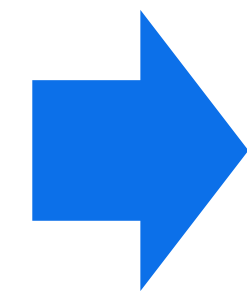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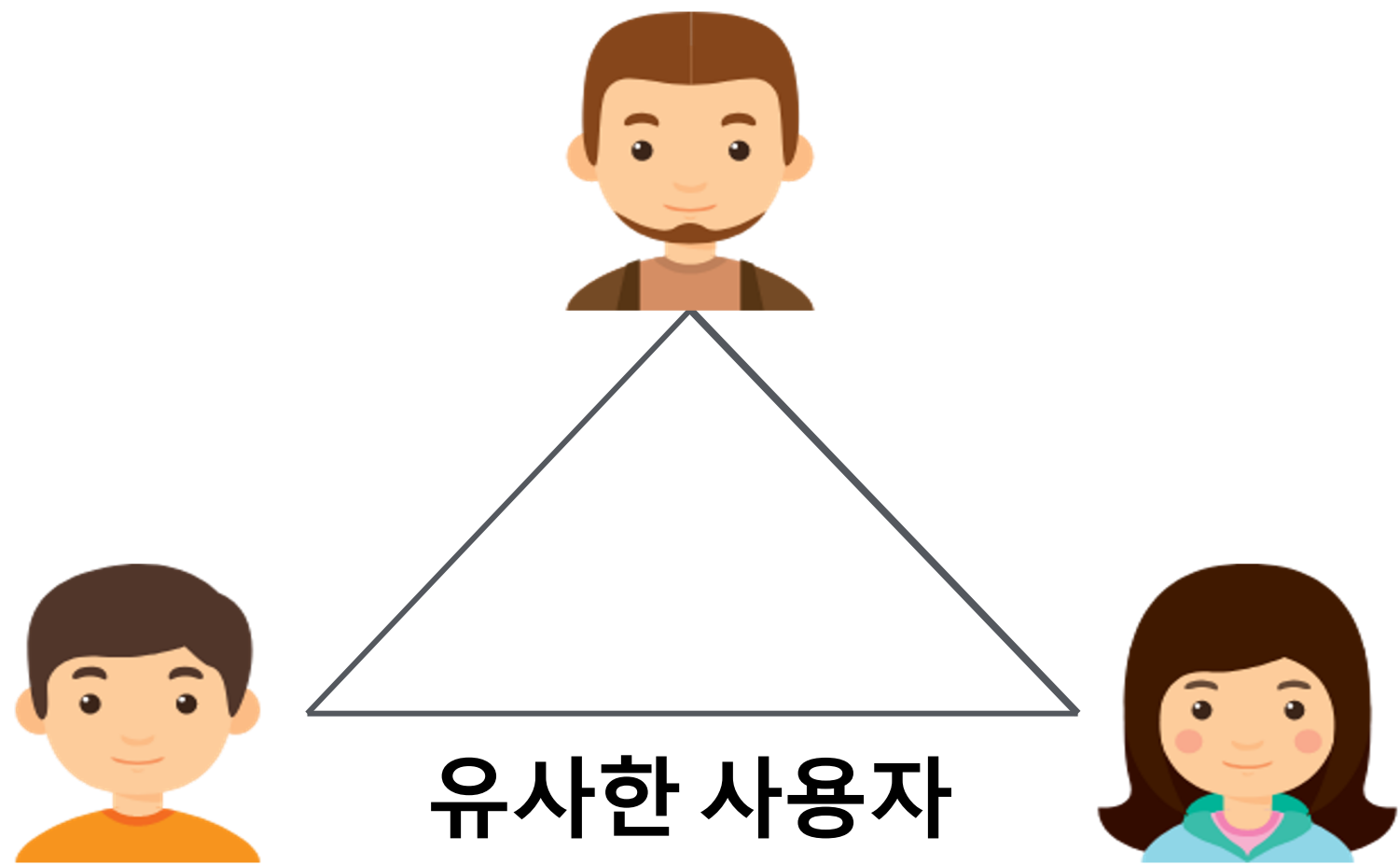


## 월렛앱 행동로그 (클릭/뷰)



# 학습 모델에 넣어주자

## 월렛탭 행동로그 (클릭/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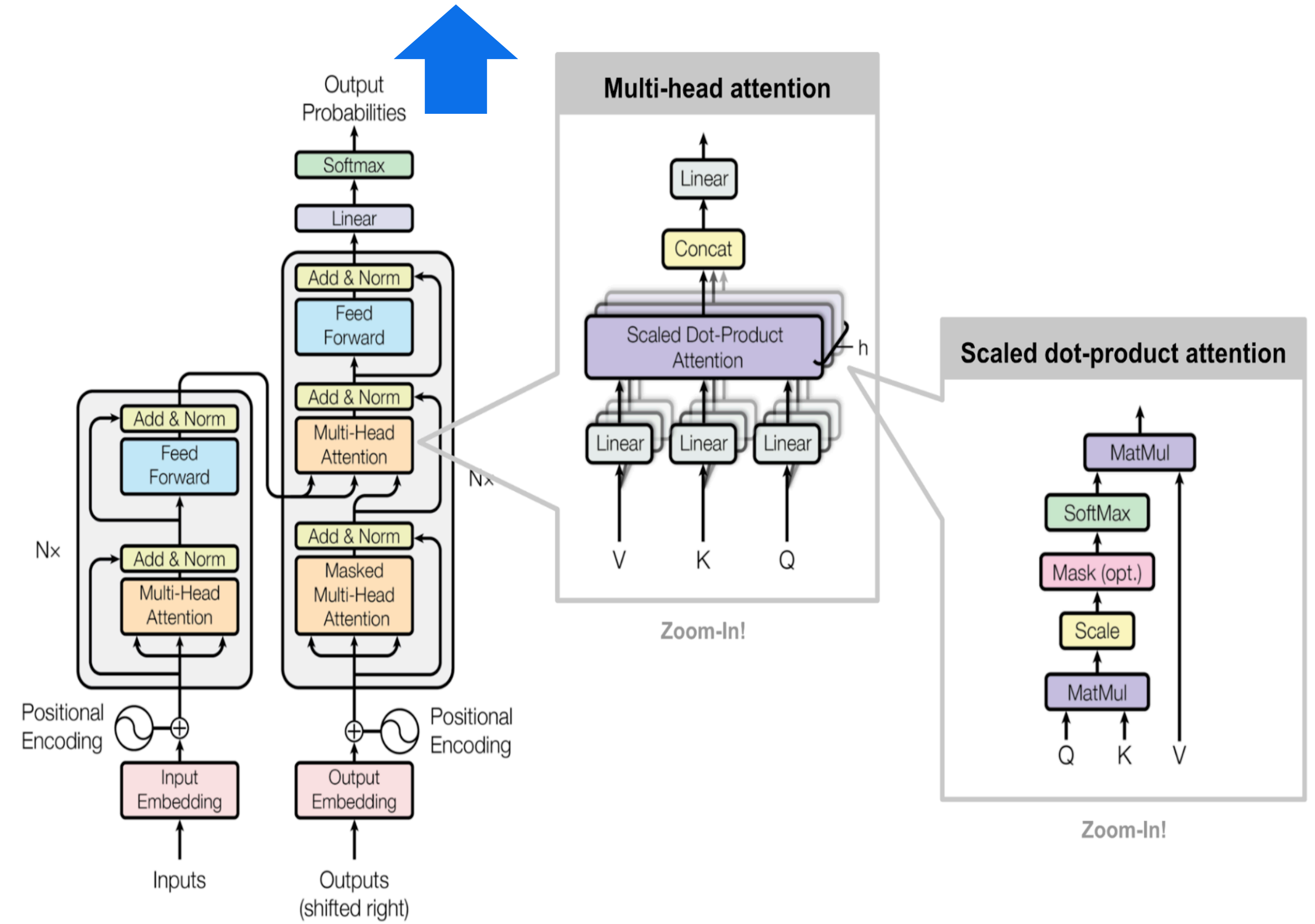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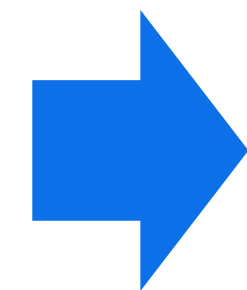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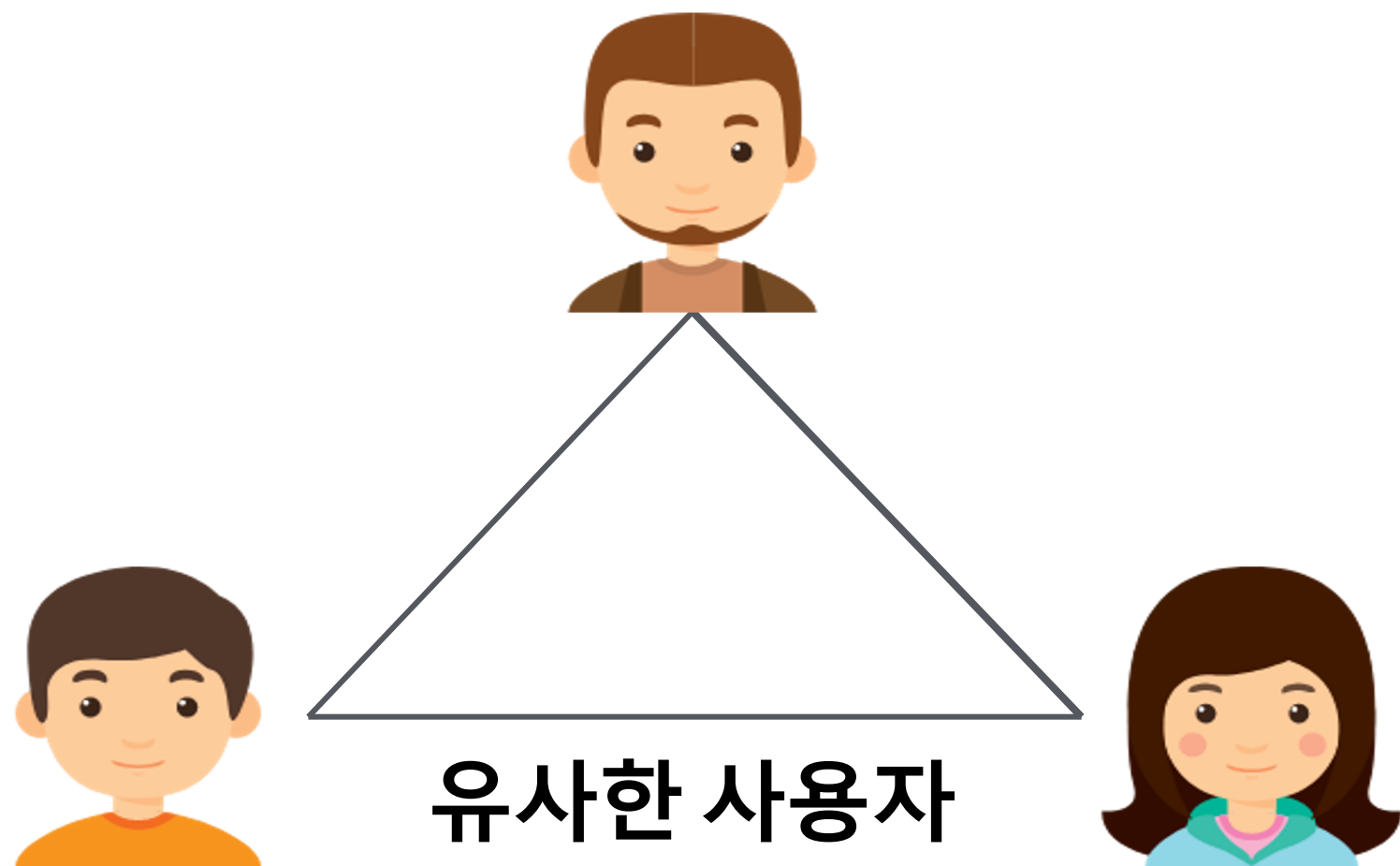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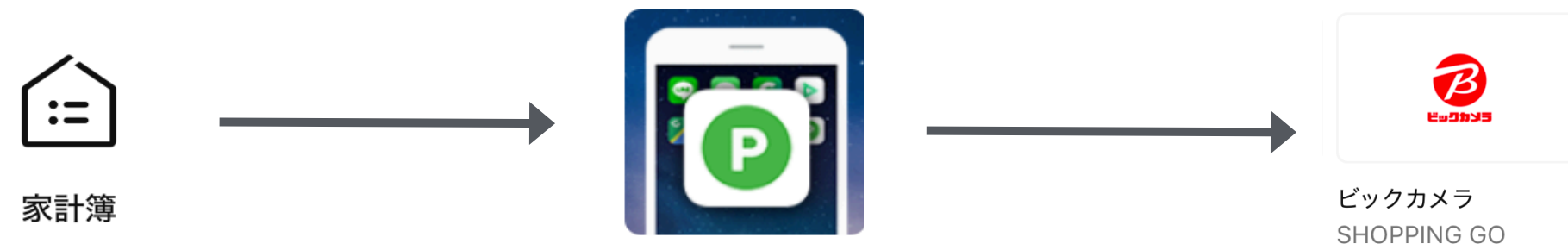
Transformer

# 학습 모델에 넣어주자



쿠폰모듈 70%

월렛탭 행동로그 (클릭/뷰)



Transformer

**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**

**난 일반적인 딥러닝 문제와는 달라~  
편향된 데이터 다루기가 핵심이다**



# 우리가 수집하는 로그에 비밀이 있으니

클릭했던 모듈을 맞추도록 학습

사용자가 주어지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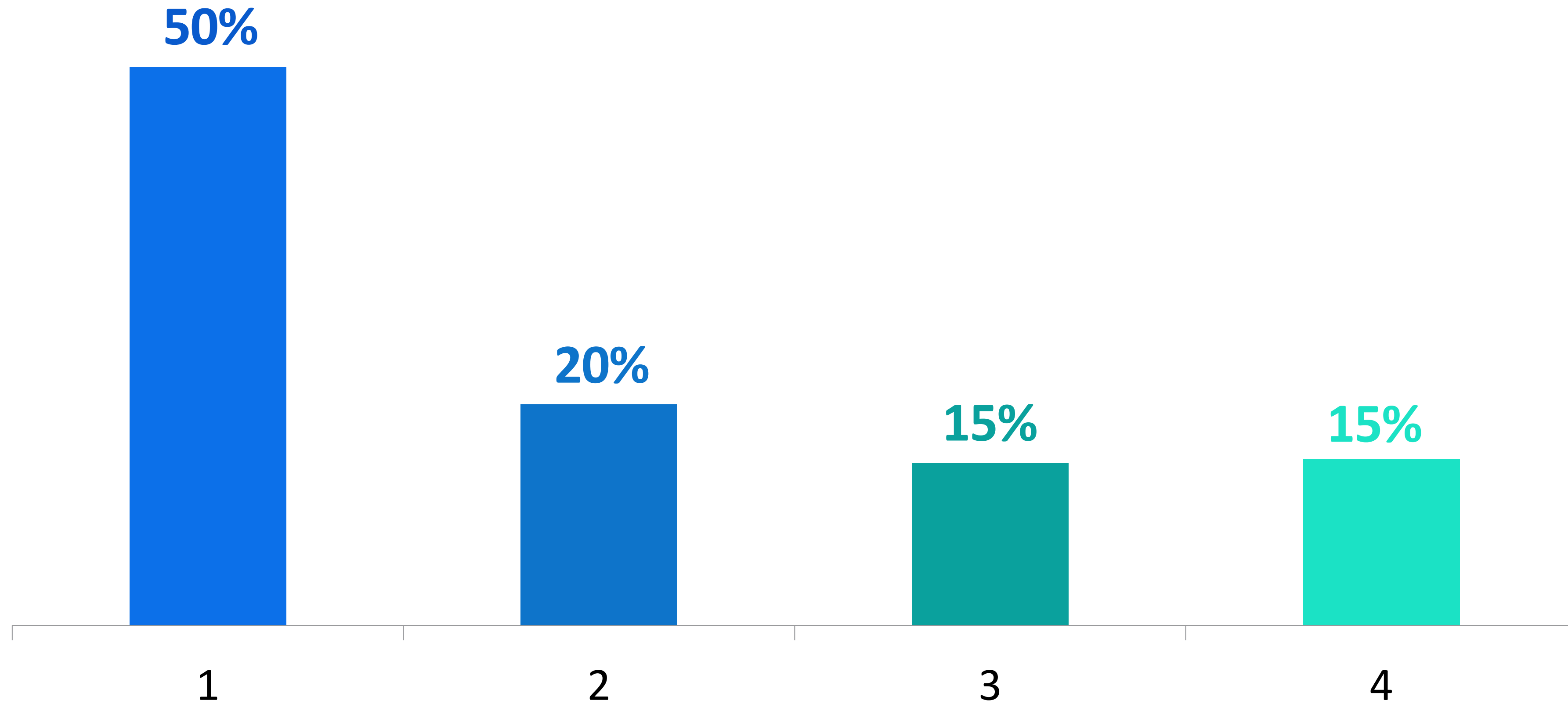


행동로그



클릭로그

# 컨텐츠 내용과 관련없이 월렛 사용자는 2번 중 1번 첫 번째 모듈을 클릭한다



# 노출 위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긴다



클릭 로그가 많음

“다음에도 상단 배치”

클릭 로그가 적음

“다음에도 하단 배치”

**위치에 따른 이점을 보정하지 않으면  
더 나은 모듈 순서를 놓치게 된다**

# 방법 1: 랜덤 데이터로 학습하기

## 의도

- › 일부 사용자들에게 모듈 순서를 랜덤으로 추천
- › 해당 집단에서 구한 CTR은 Position Bias 약함

## 장점

- › Position Bias가 없는 데이터
- › 구현이 편함

## 단점

- › 데이터 크기가 매우 작음
- › 사용자에게 같은 순서로만 추천되어 기호성을 확인하기 어려움

# 방법 2: CTR Loss Weight

## 의도

- › Loss를 CTR로 Weighting하여 높은 CTR을 갖는 모듈 추천 강화
- › Position이 위로 갈수록 CTR이 낮아져서 debias 효과

## 장점

- › Position Bias 완화
- › Class Imbalance 문제 완화

## 단점

- › CTR이 높은 모듈에 지나치게 편향됨
- › Class Imbalance 문제에 취약

# 방법 3: CTR Mini-Batch

## 의도

- › Loss Weighting 대신에 CTR에 비례하여 Mini-Batch를 구성

## 장점

- › Position Bias 완화
- › Class Imbalance 문제 완화

## 단점

- › CTR이 높은 모듈에 지나치게 편향됨
- › Class Imbalance 문제에 취약

# 방법 4: Explorative Labeling

## 의도

- › 많은 사용자들이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모듈이 존재
- › 안 본 모듈을 직접 보여주기 전에는 기호성 파악 불가능
- › Thompson Sampling 기반으로 view가 적은 모듈을 일정 확률로 labeling

## 장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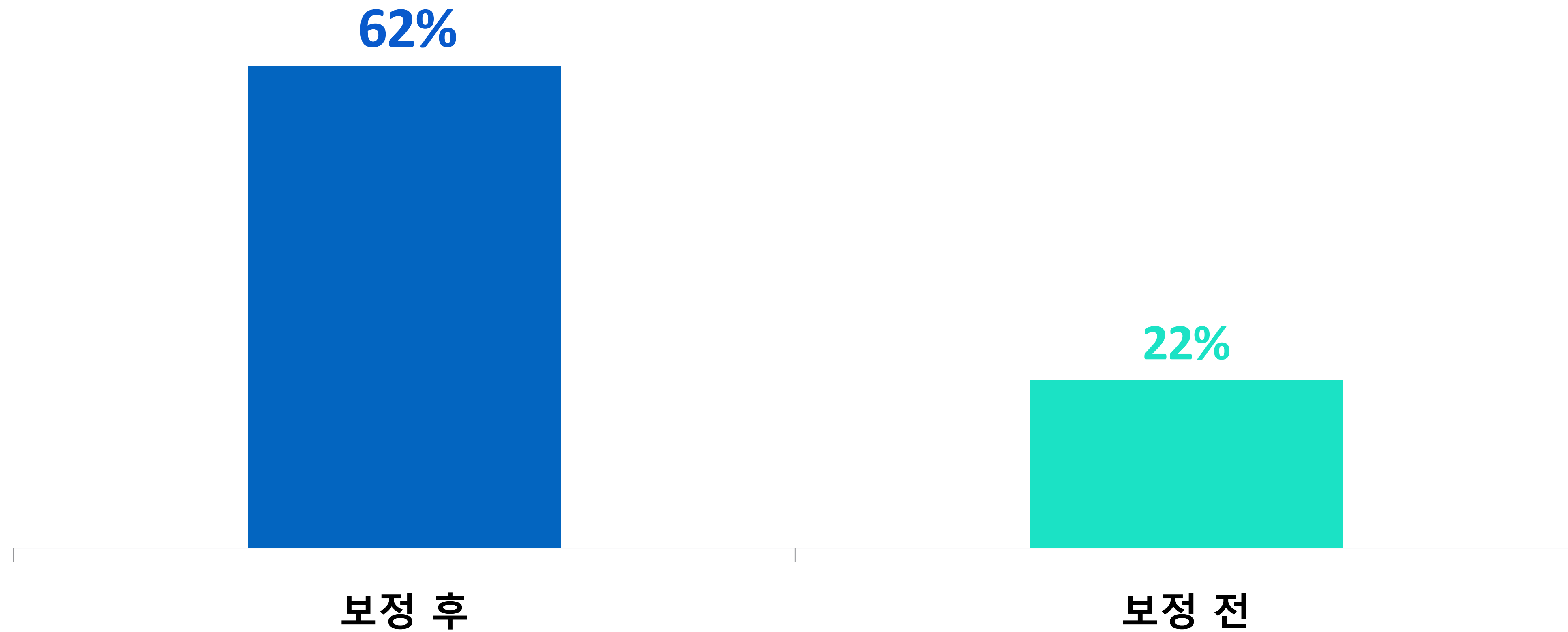
- › Exploration 효과
- › 진짜 기호성 파악

## 단점

- › 관심 없는 모듈을 추천할 수 있음
- › 탐색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도 이탈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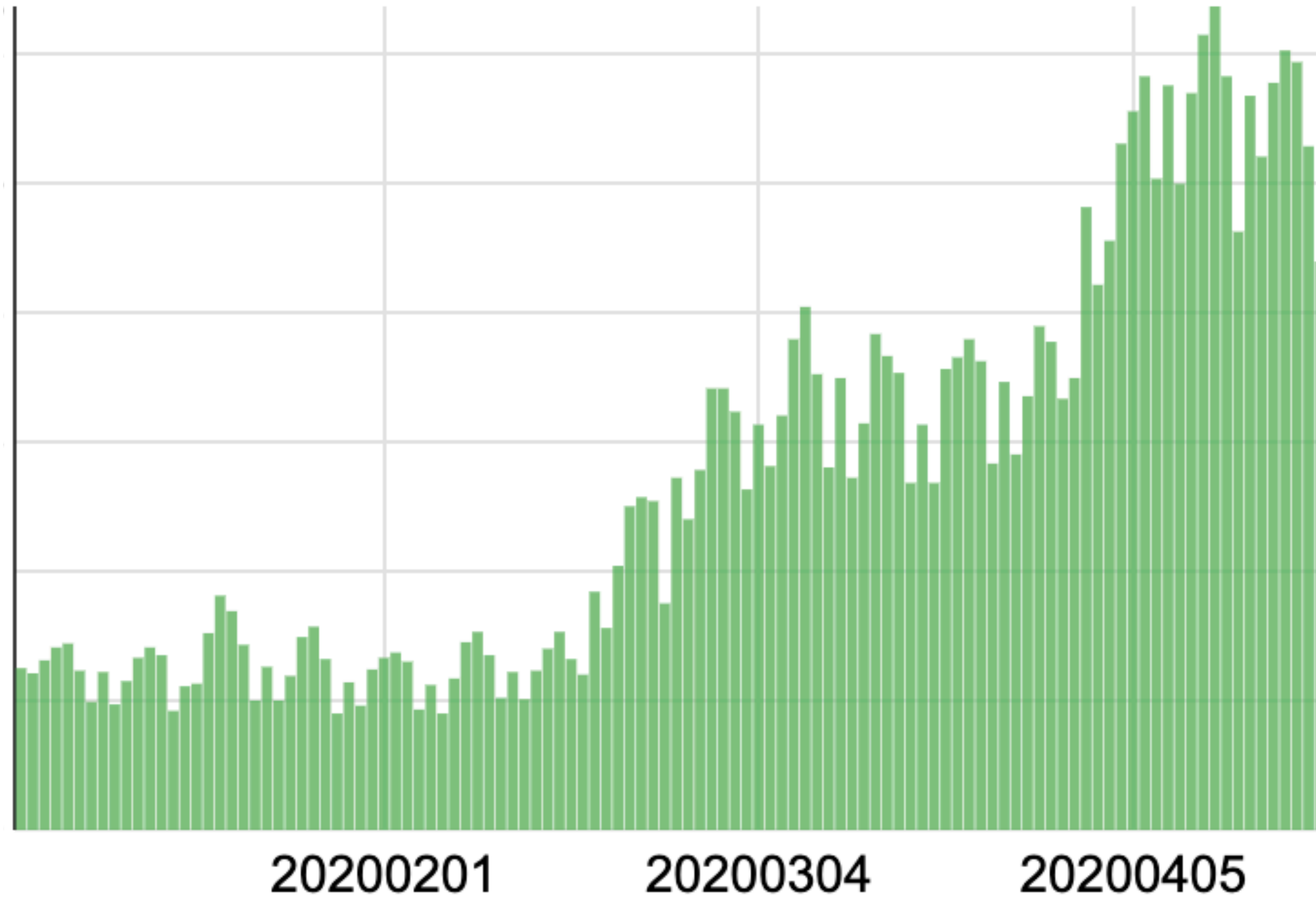


# 보정해주니 모듈 CTR이 더 오른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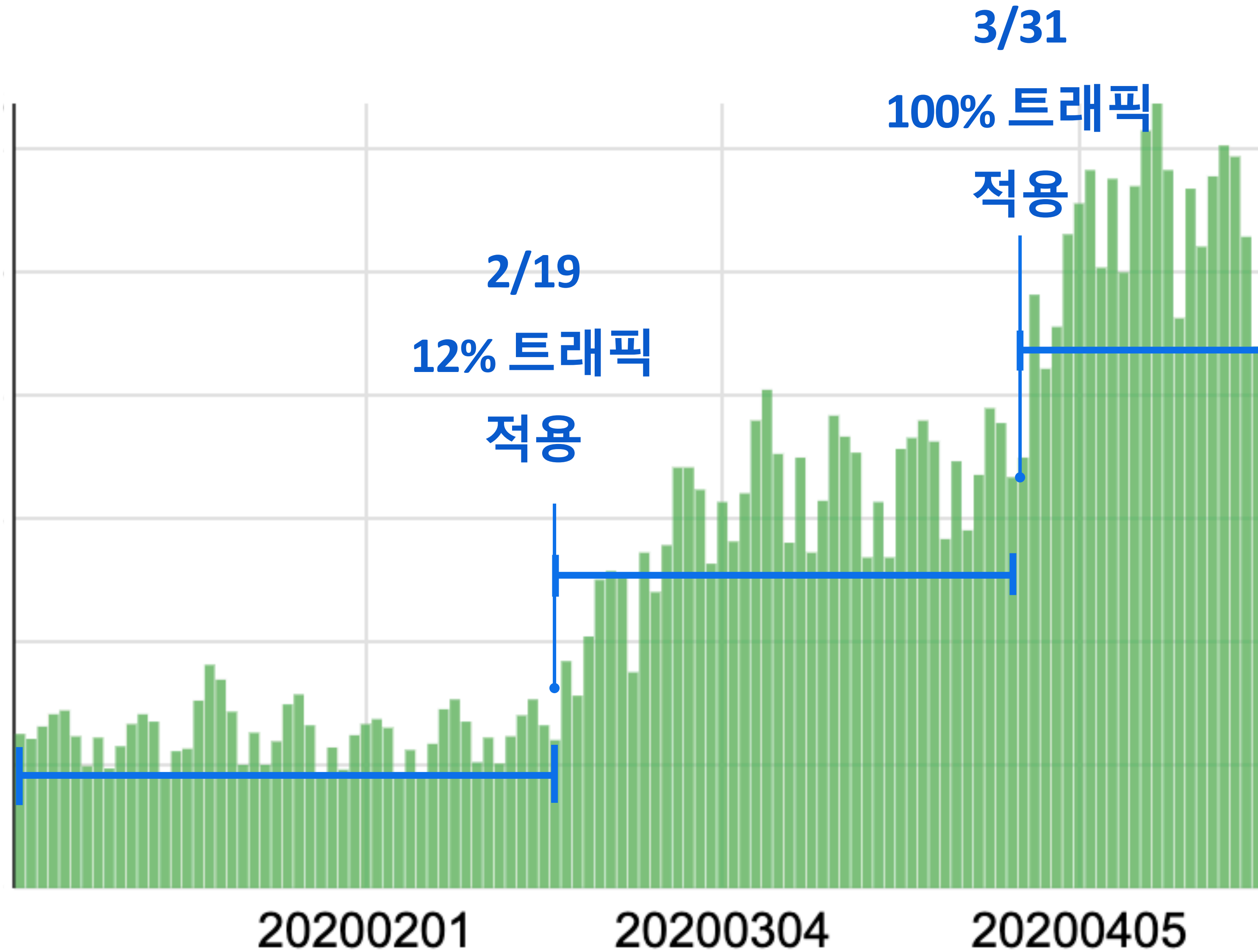


**그래서 CTR, 얼마나 올랐나?**

# 월렛모델 CTR의 계단식 상승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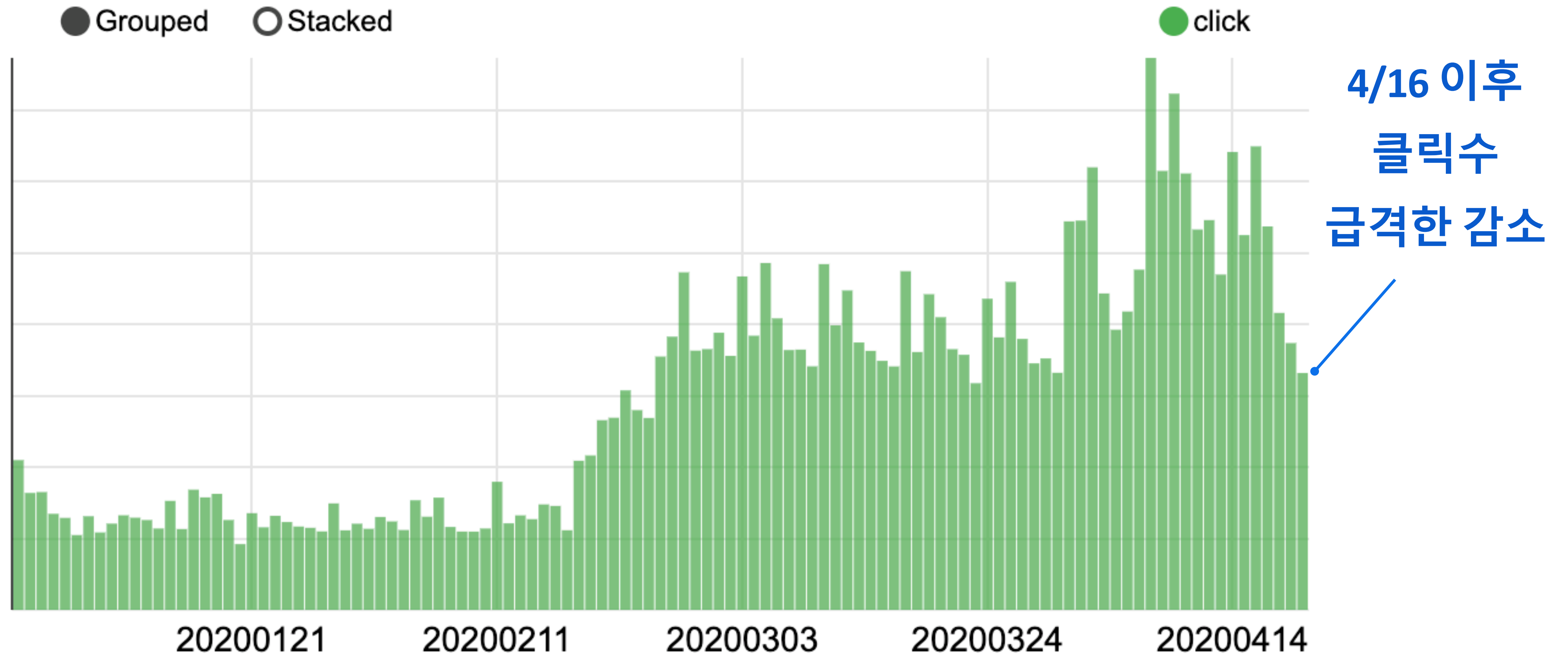


# 월렛모델 CTR의 계단식 상승세



**기획 vs 추천, 누가 이길까?**

# 잘 나가던 월렛탭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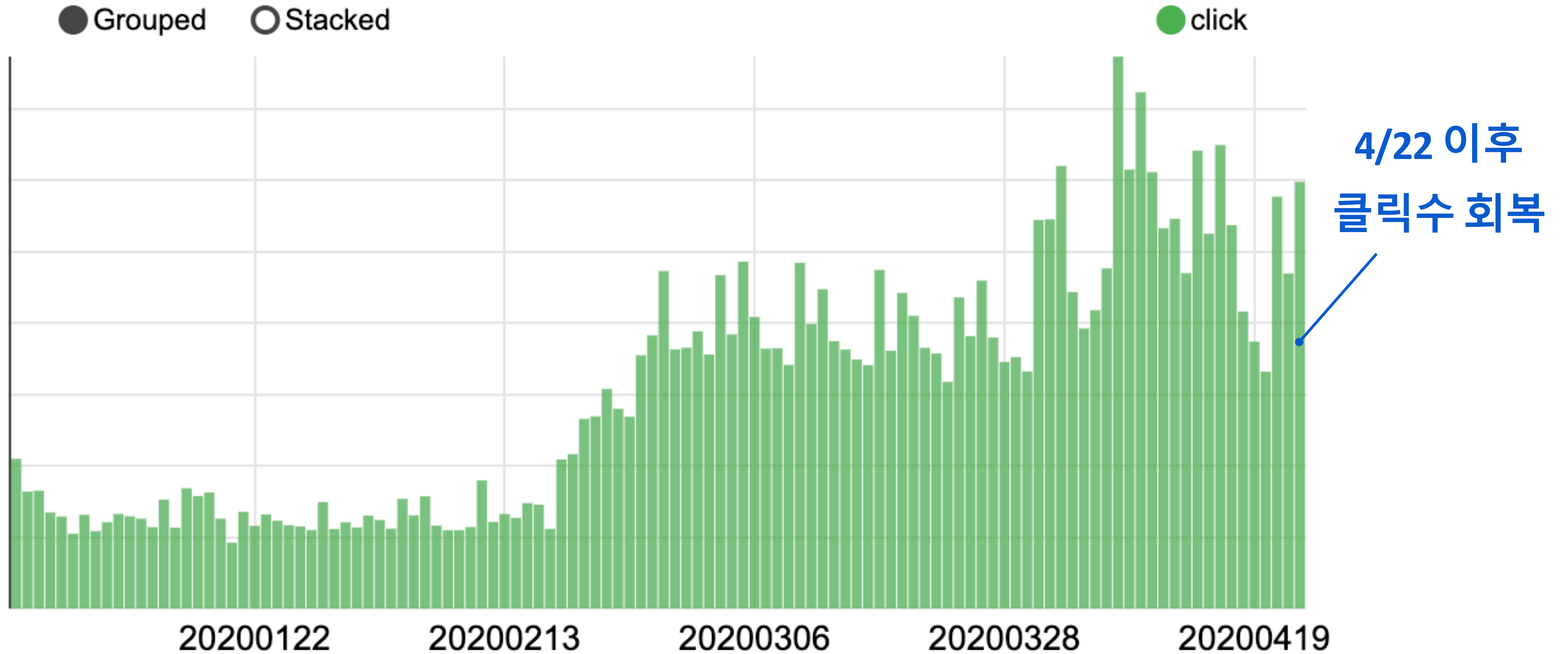


# 기획 모듈, 28% 트래픽의 월렛탭 최상단에 쇼핑모듈 노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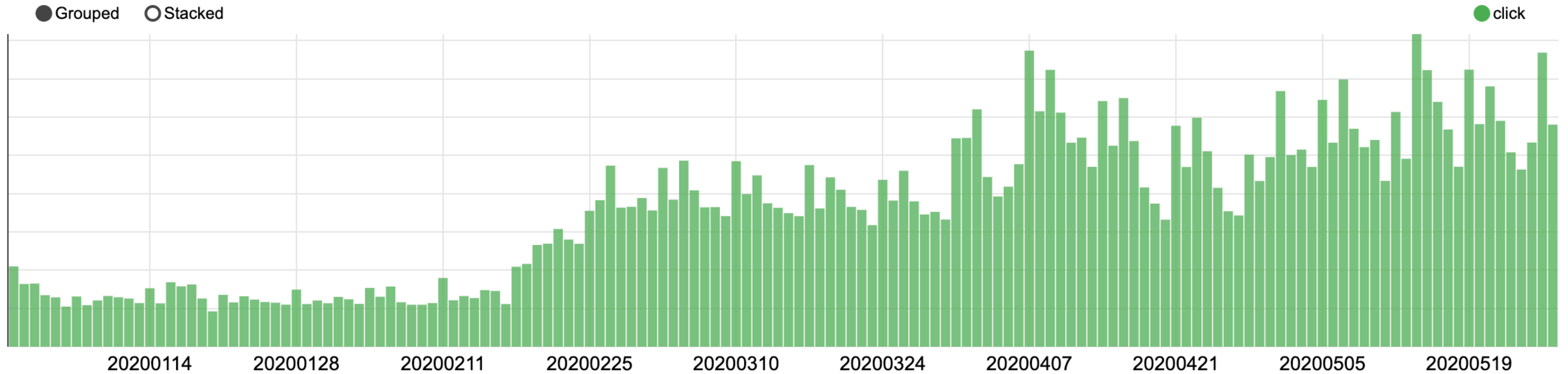
새로운 쇼핑모듈

# 쇼핑모듈을 최상단에서 내리자 회복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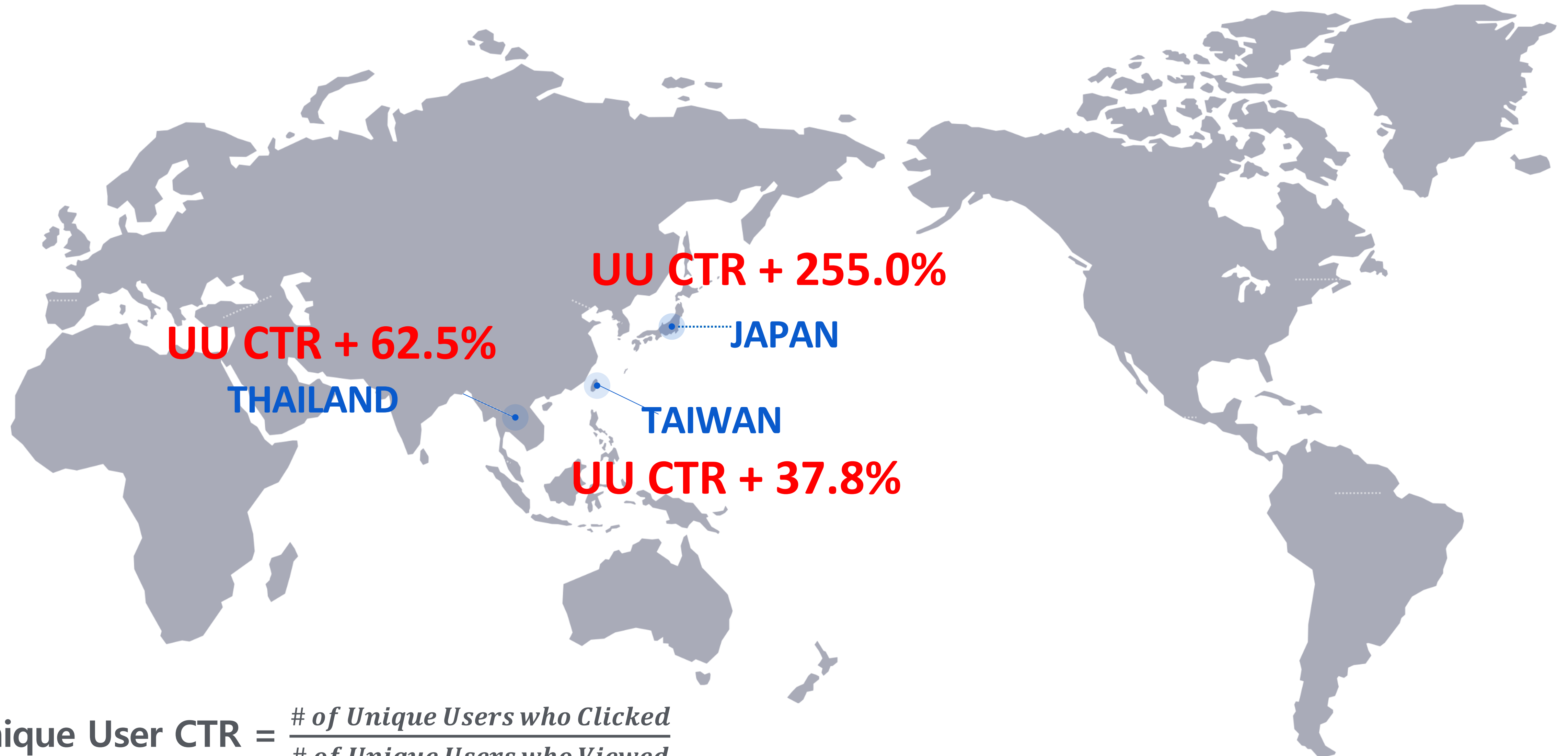




# 5월까지 추세



# 일본, 대만, 태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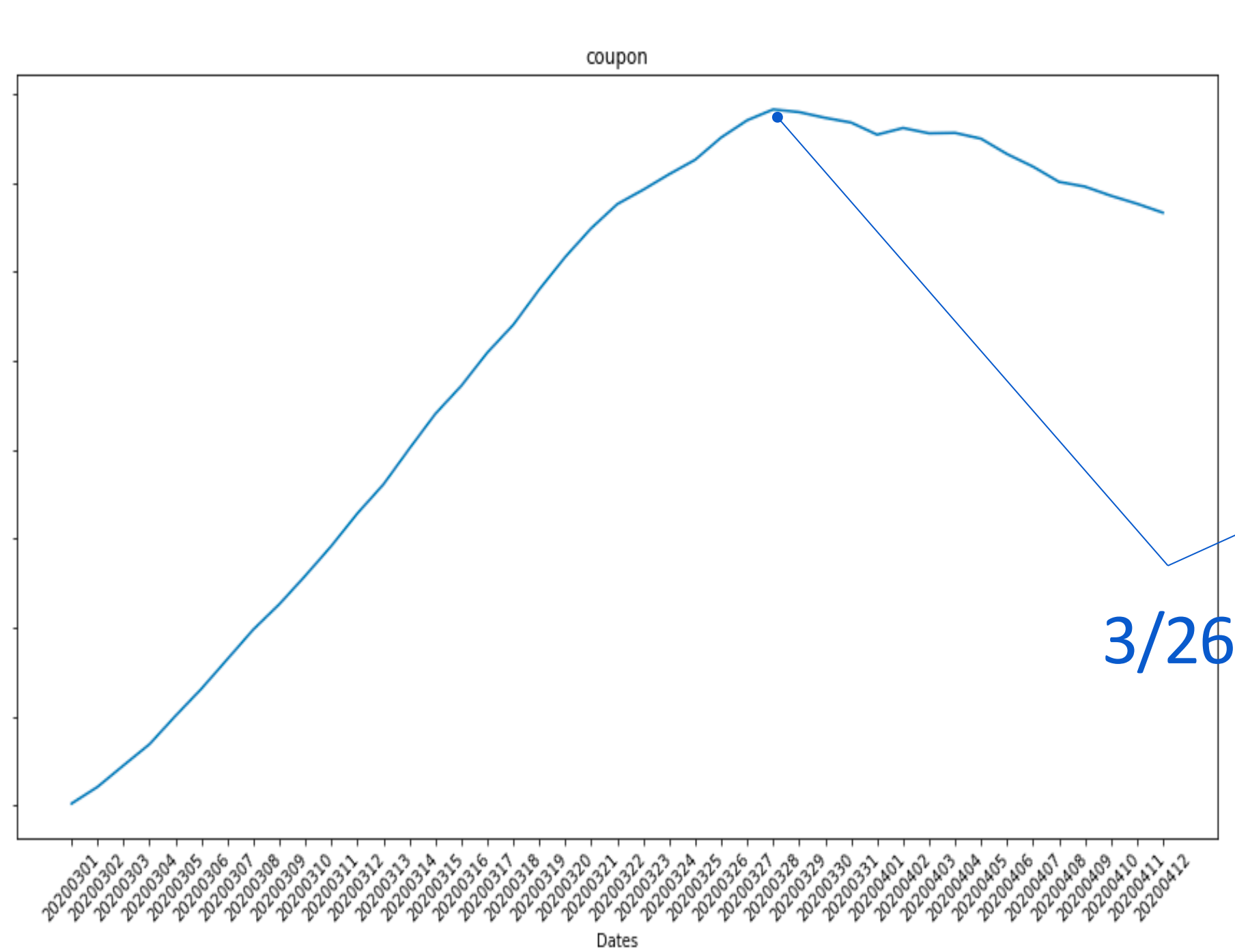


Unique User CTR =  $\frac{\text{\# of Unique Users who Clicked}}{\text{\# of Unique Users who Viewed}}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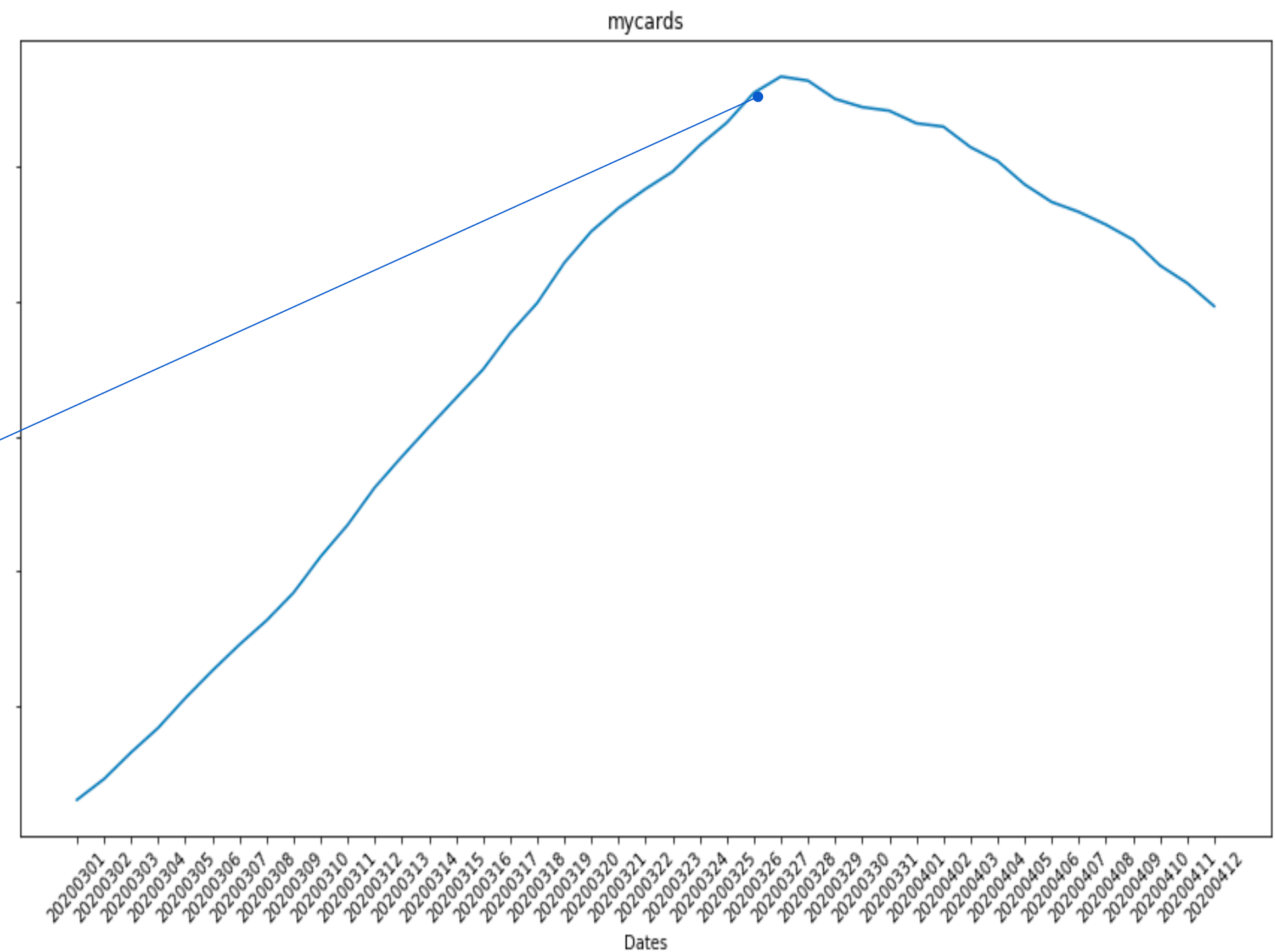
# 좋은 모듈, 나쁜 모듈? 그리고 아이템추천의 필요성

# 최근 일본 코로나의 영향으로

## Outdoor 상품이 인기가 없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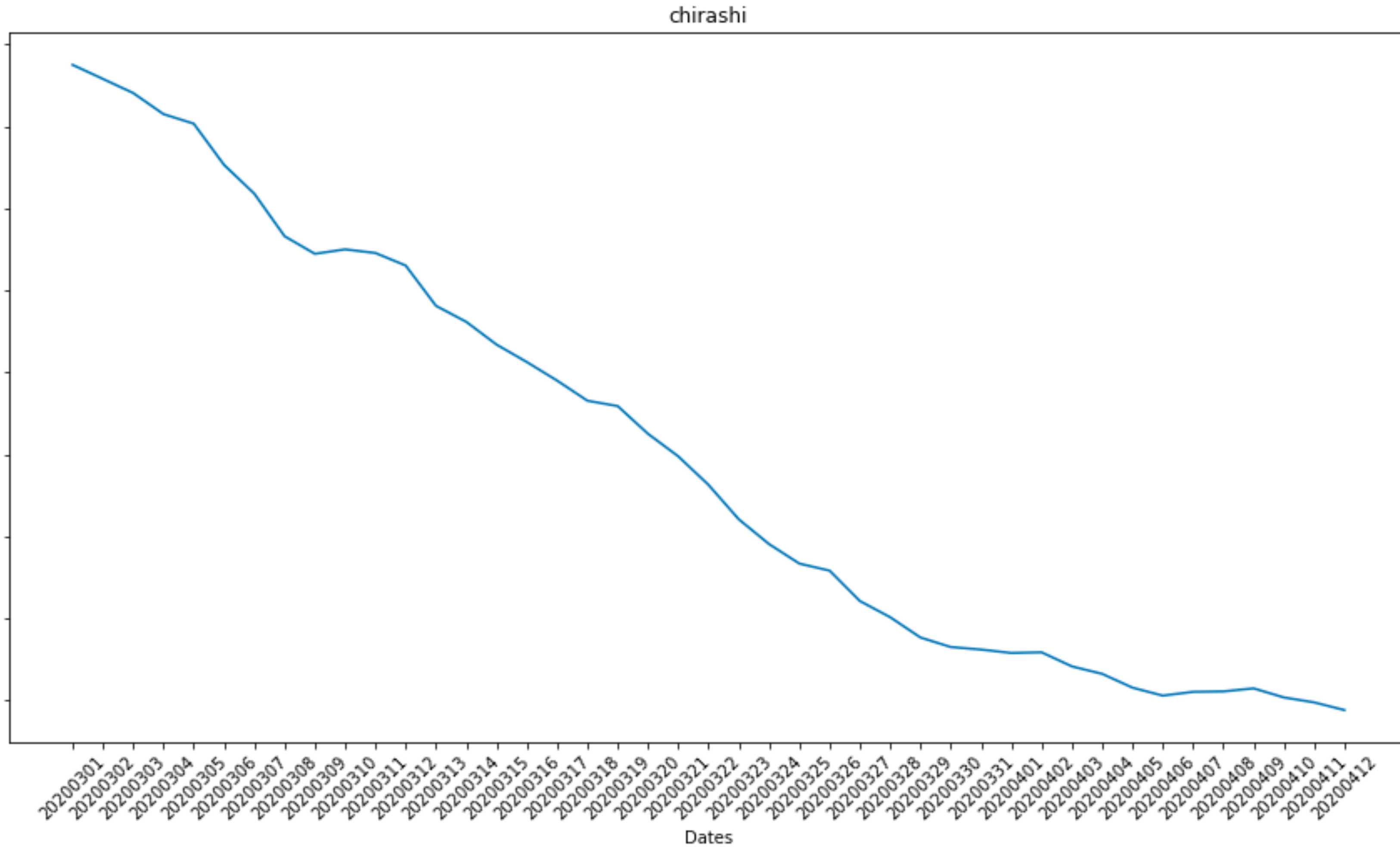


Coupon 사용자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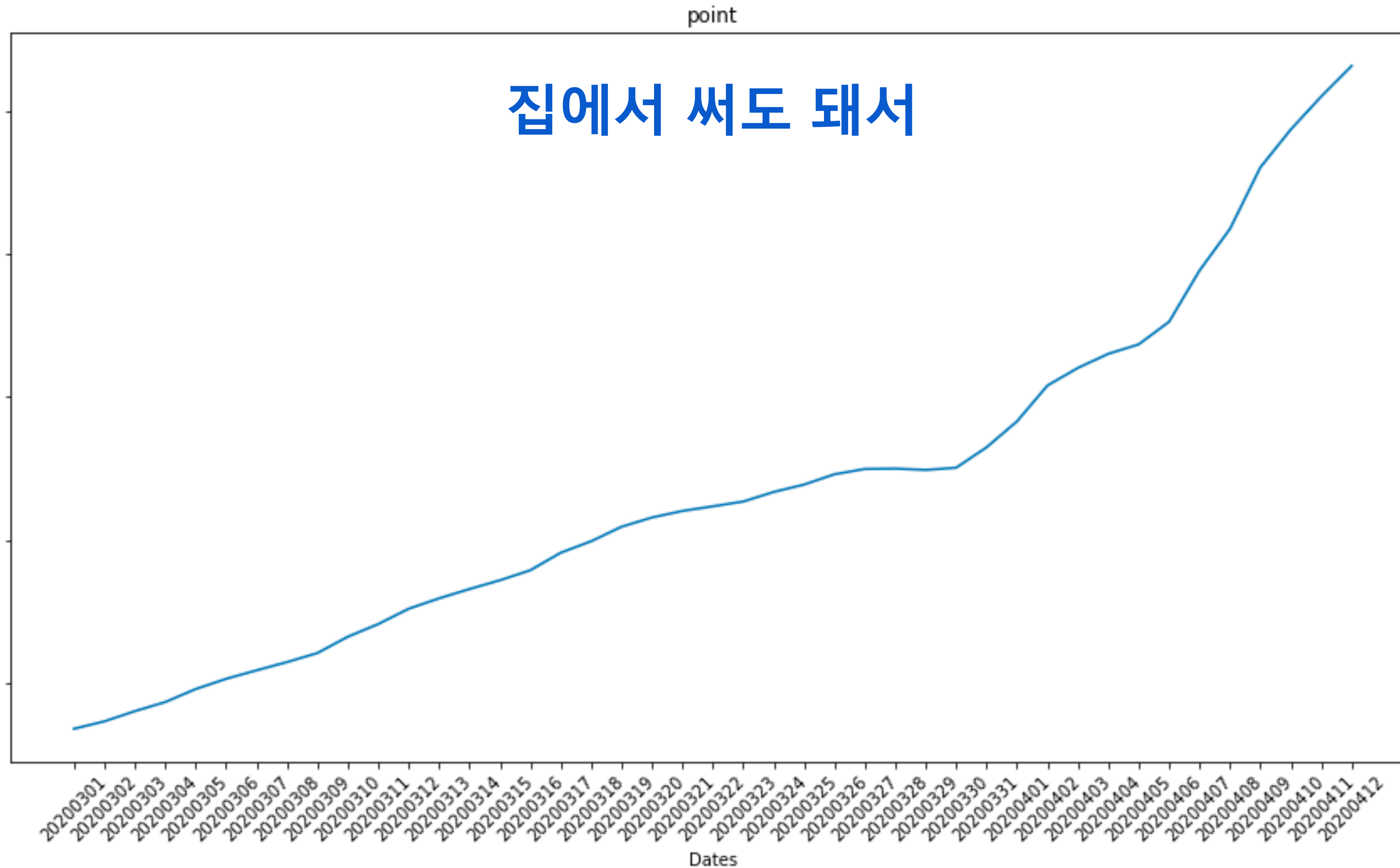
MyCard 사용자 수

# Chirashi 사용자는 계속 감소추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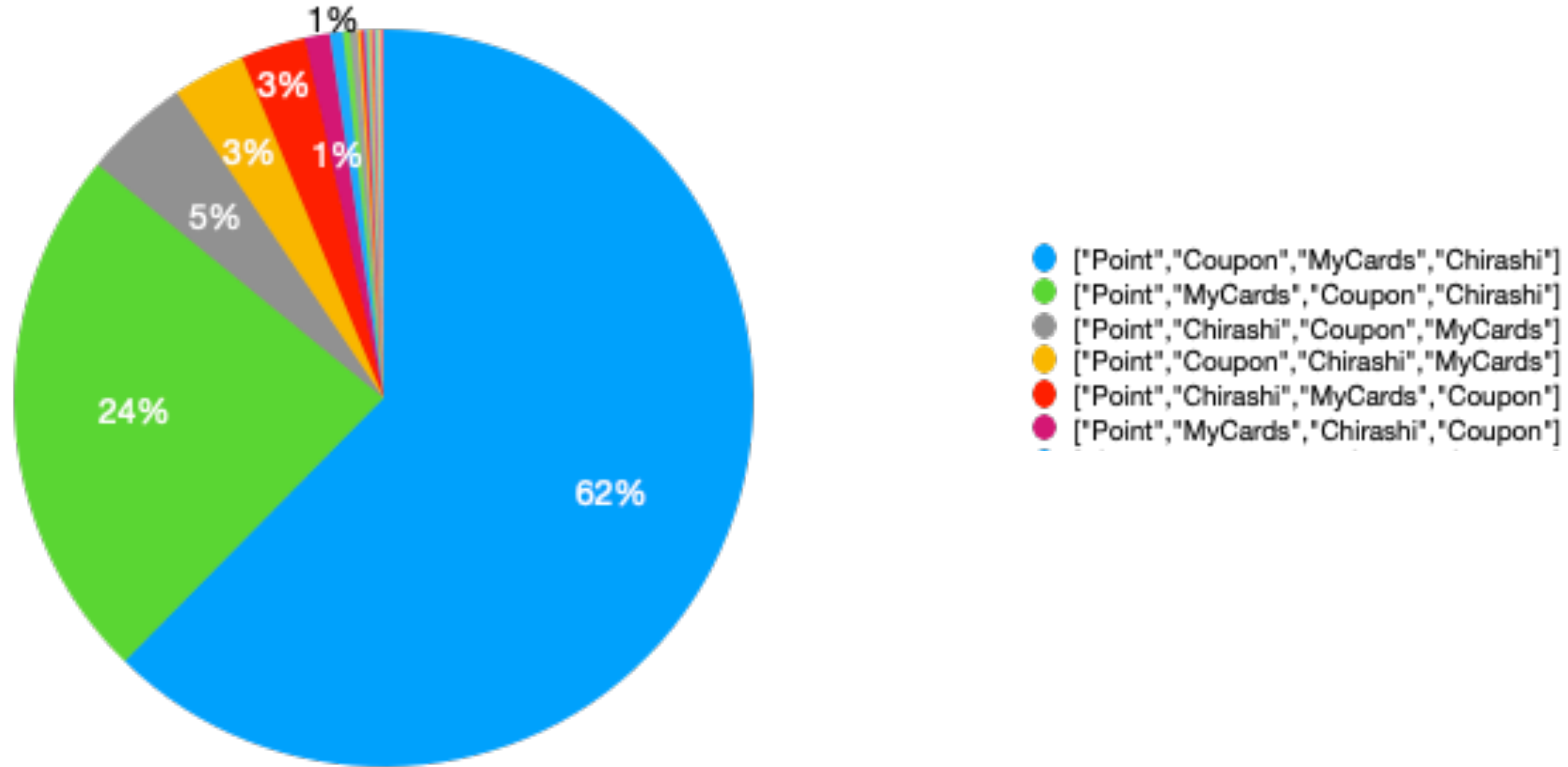
Chirashi 사용자 수

# 반면 Points 사용자는 증가한다



Points 사용자 수

# Lesson: Points는 좋고 Chirashi는 나쁘다?



트래픽의 99%가 최상단에 Points를,  
86%가 최하단에 Chirashi를 배치

**아이템 추천이 같이 이뤄져야  
다른 모듈도 활성화**



# 3. Graph Neural Network for Recommendation

# LINE Coupon



500+ items, 30+ brands

# Coupon 추천의 시작



Android & iOS  
2020.05 ~

# 개인화 추천



버거러버 영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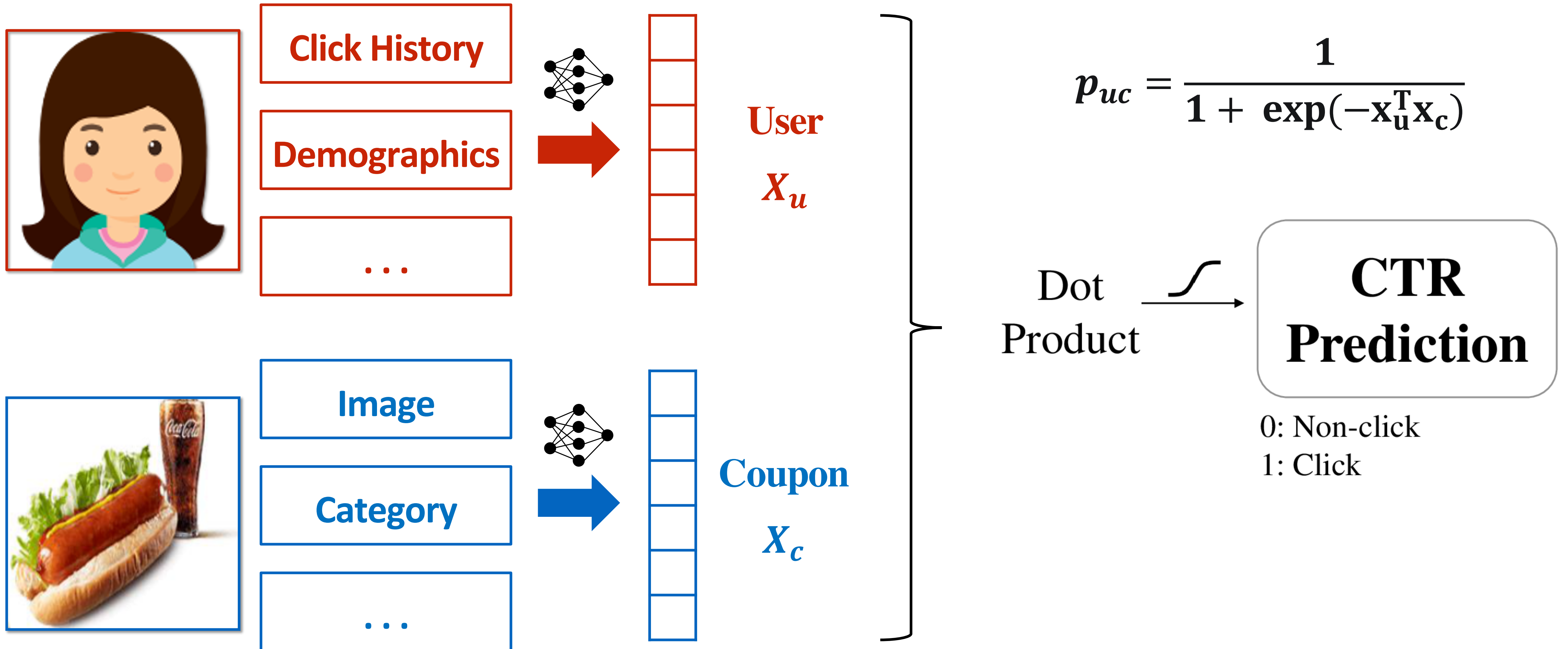
빵돌이 철수



사용 기록

추천

# 딥러닝 기반 추천 시스템



# Cold Start Problem & Diversity



**New Users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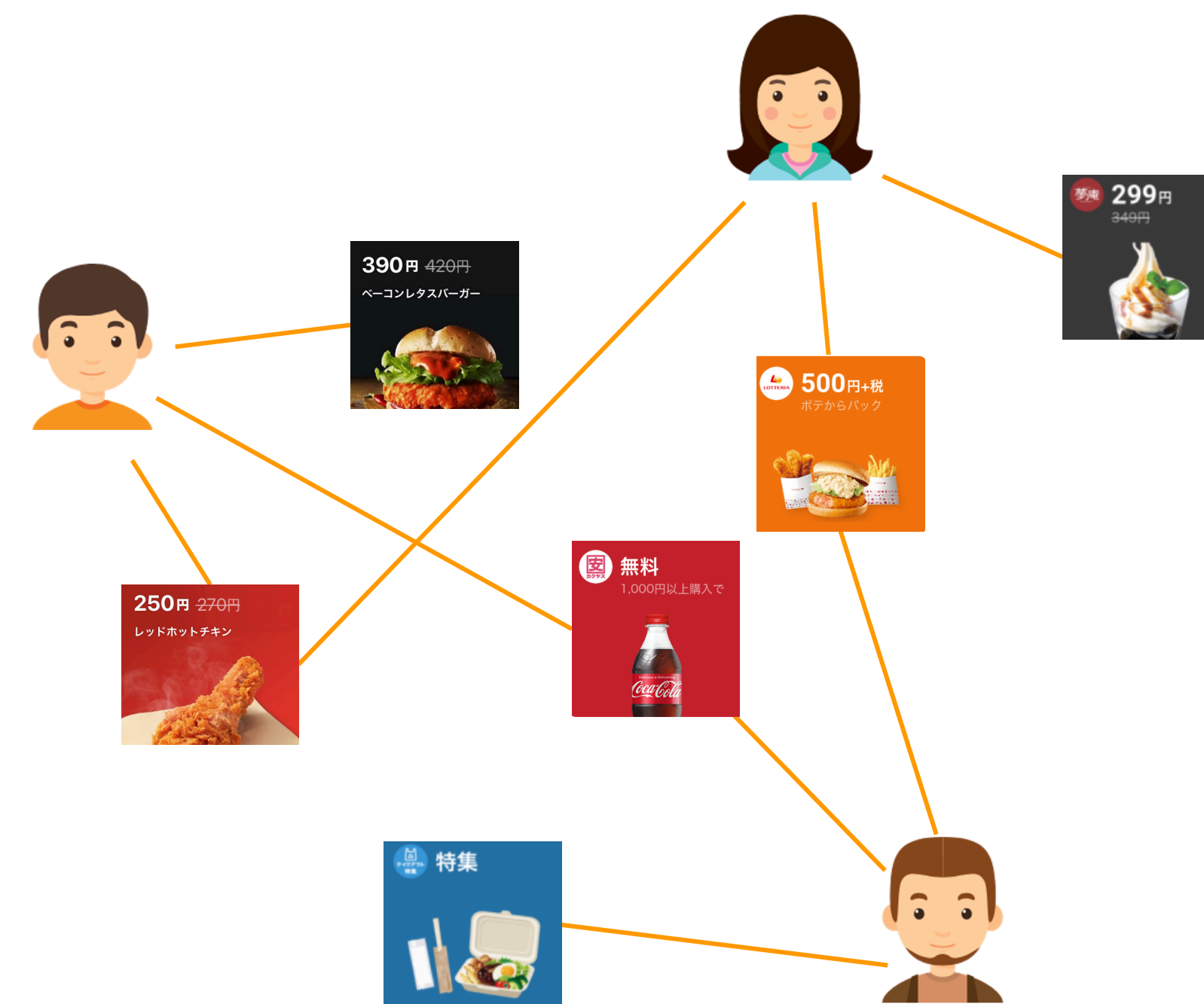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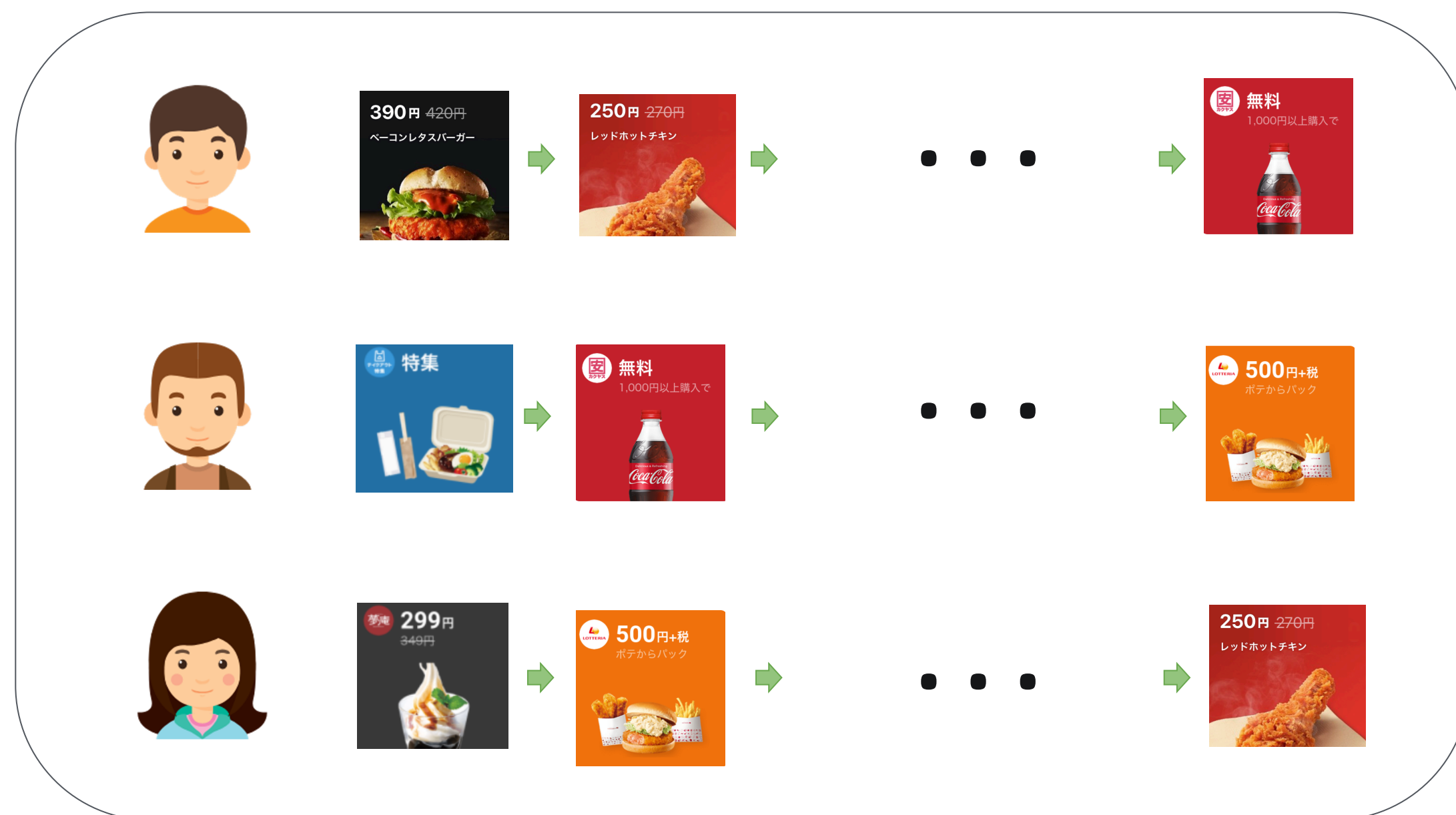


**New Coupons**

**Our Goal: CTR과 Diversity, 두 마리 토끼 잡기**

# 그래프로 모든 로그를 엮어라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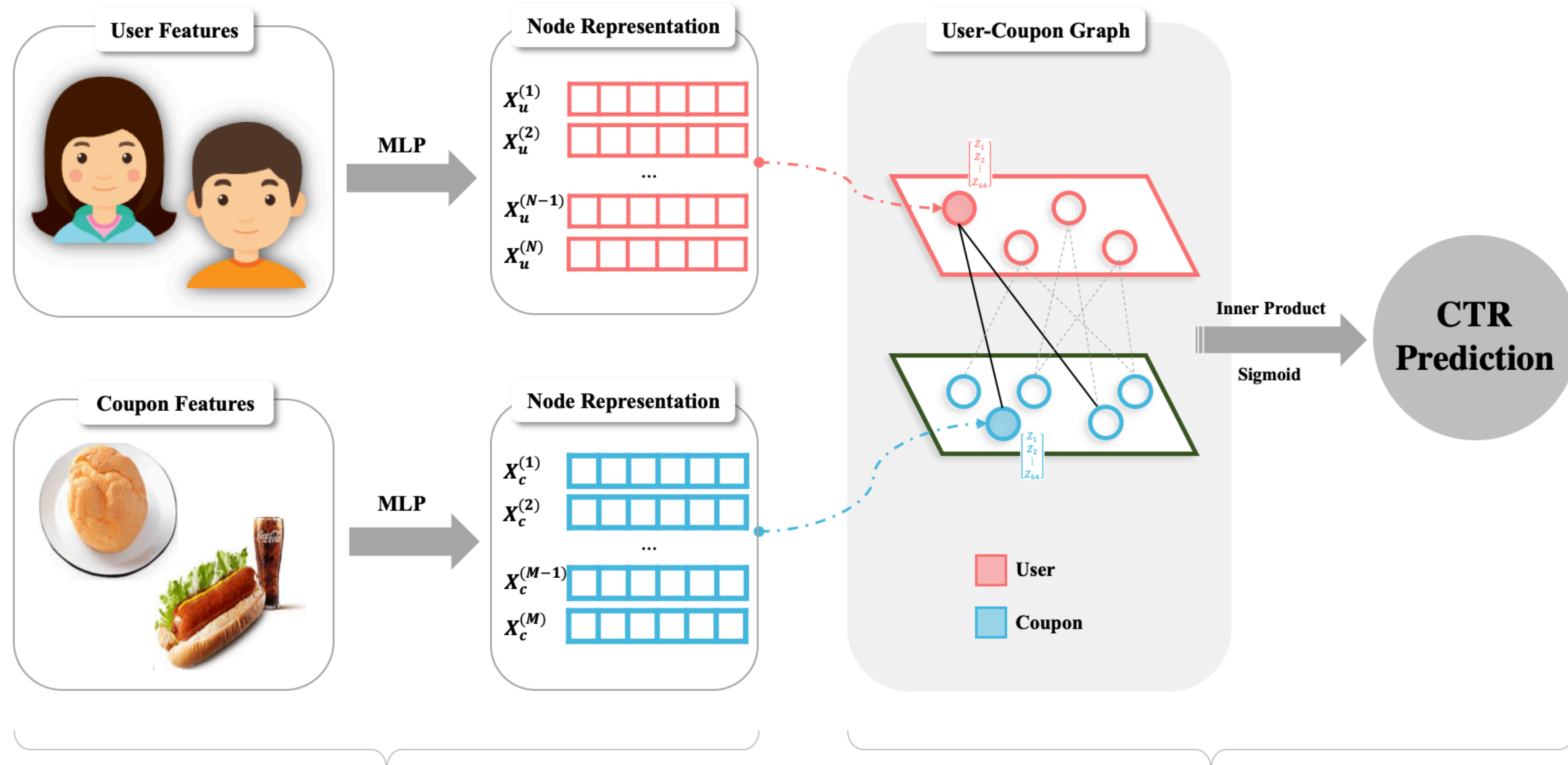
## 과거의 쿠폰사용로그



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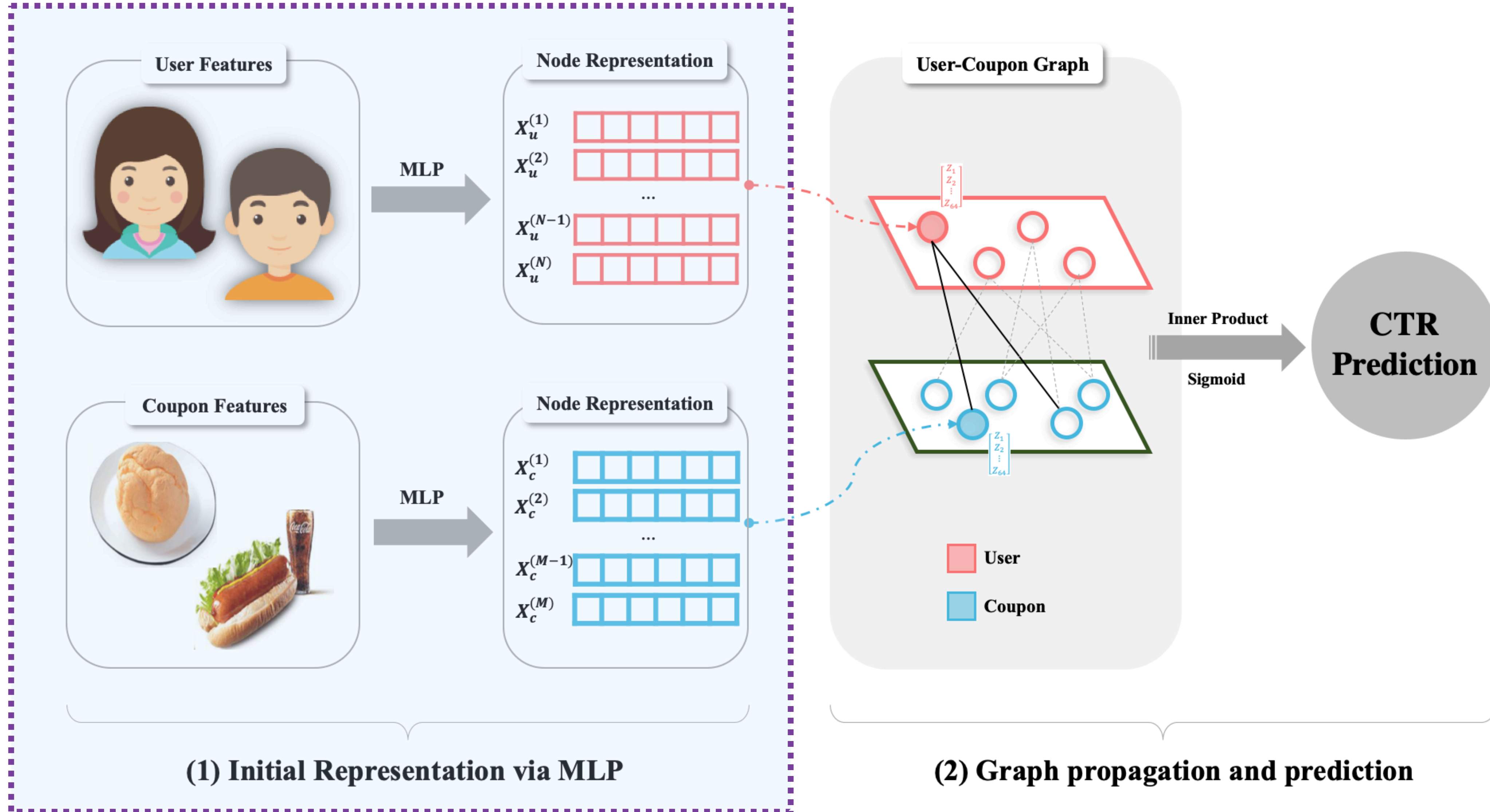
# 그래프 기반 추천 시스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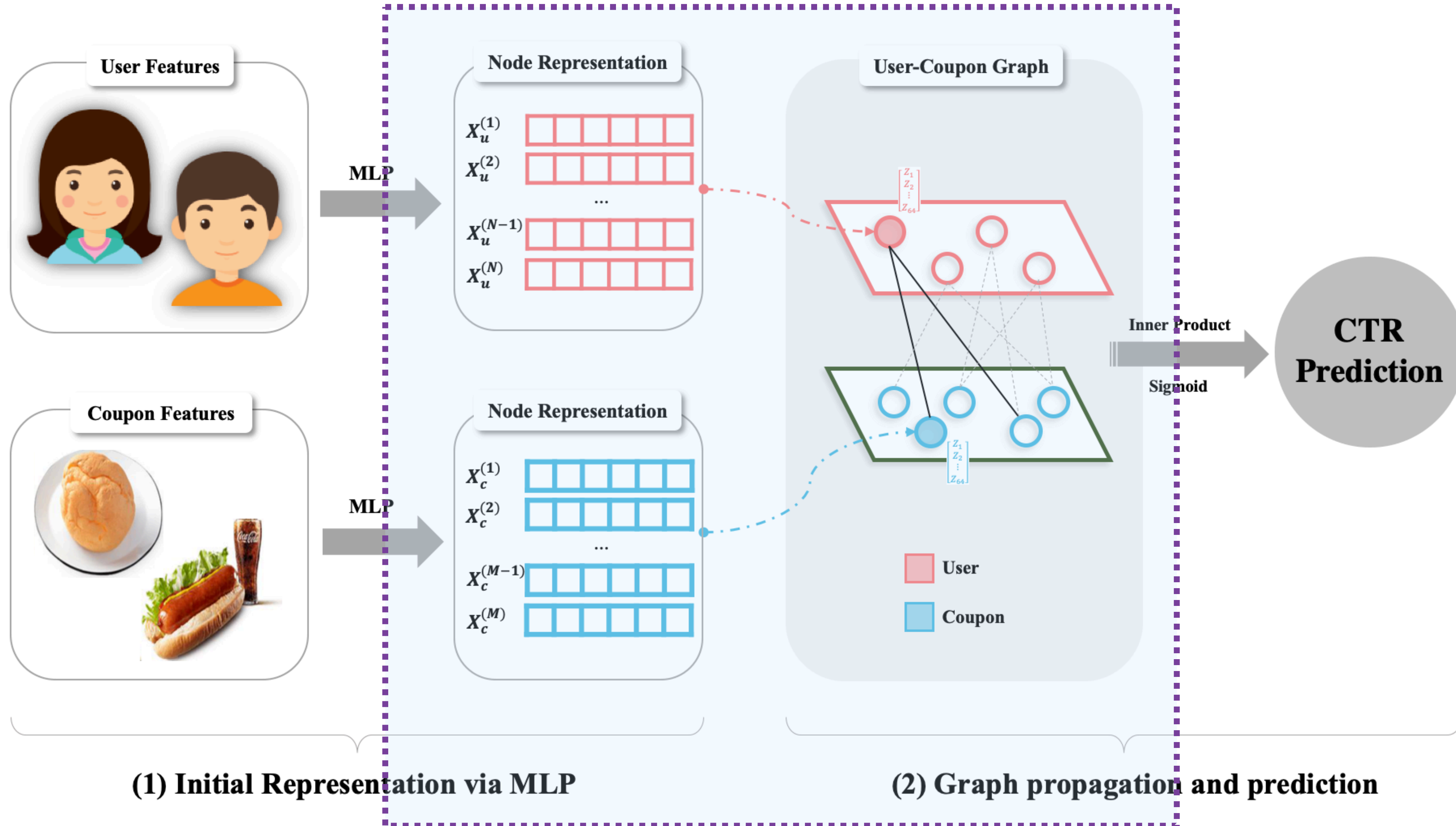
**(1) Initial Representation via MLP**

**(2) Graph propagation and prediction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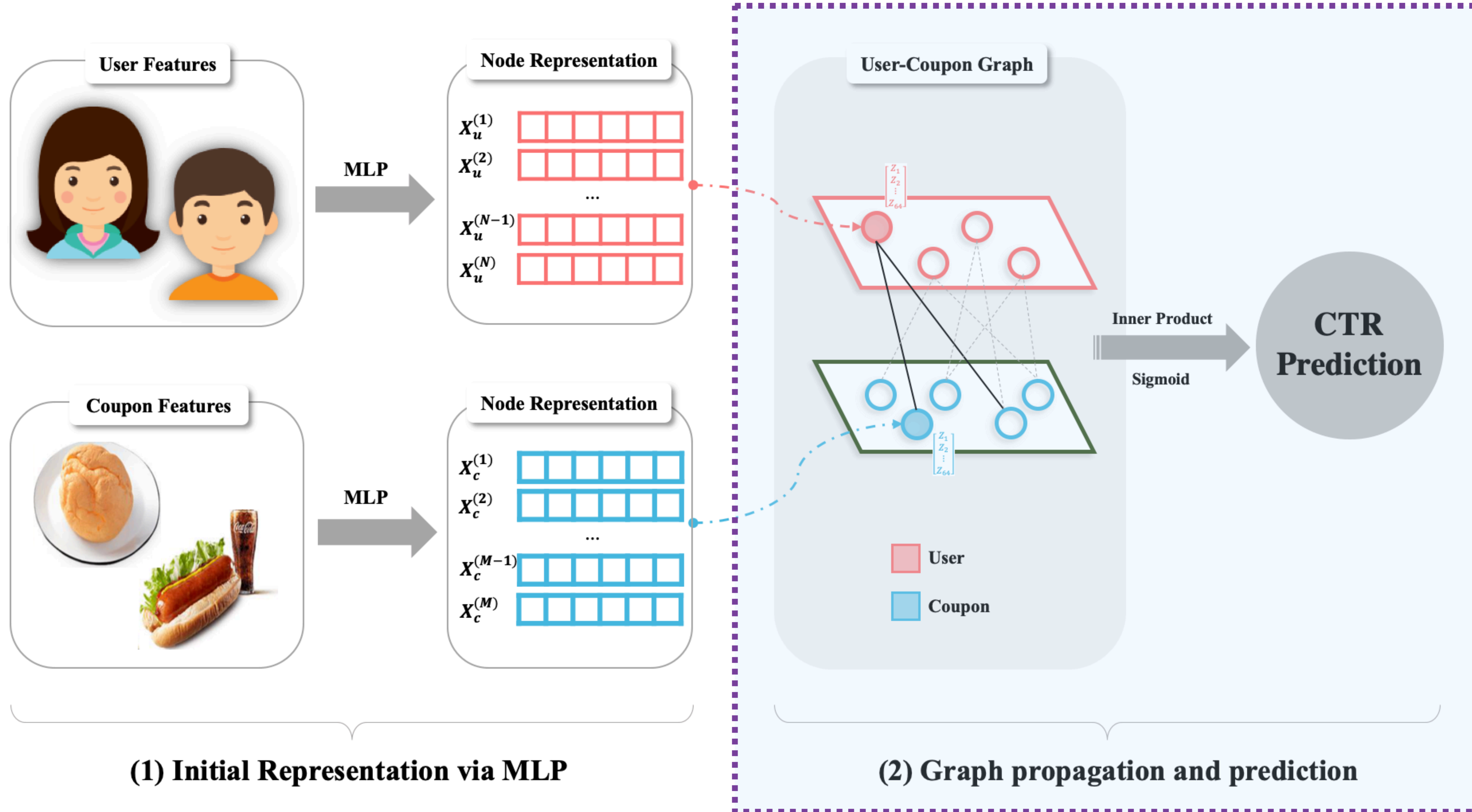
# 그래프 기반 추천 시스템



# 그래프 기반 추천 시스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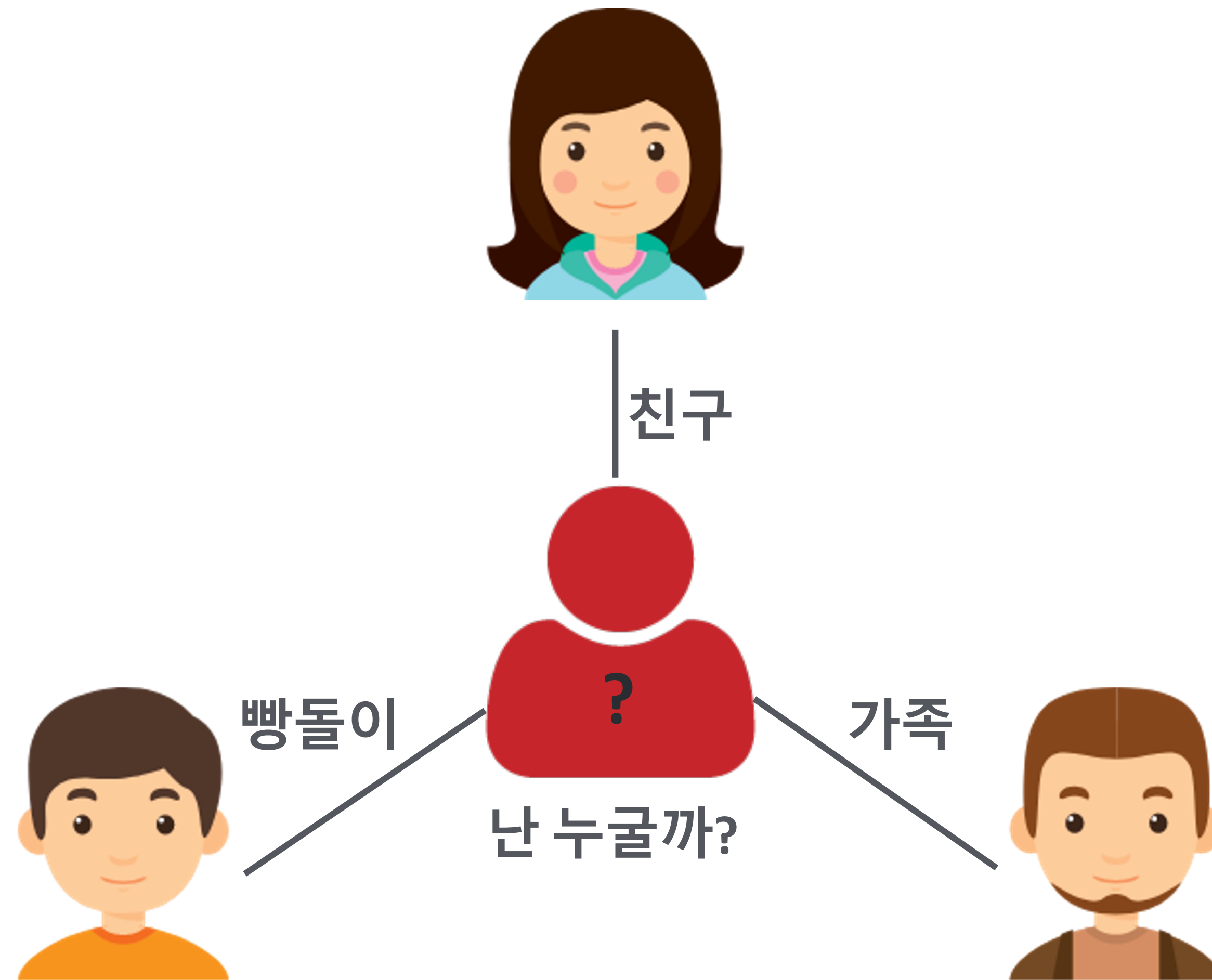
# 그래프 기반 추천 시스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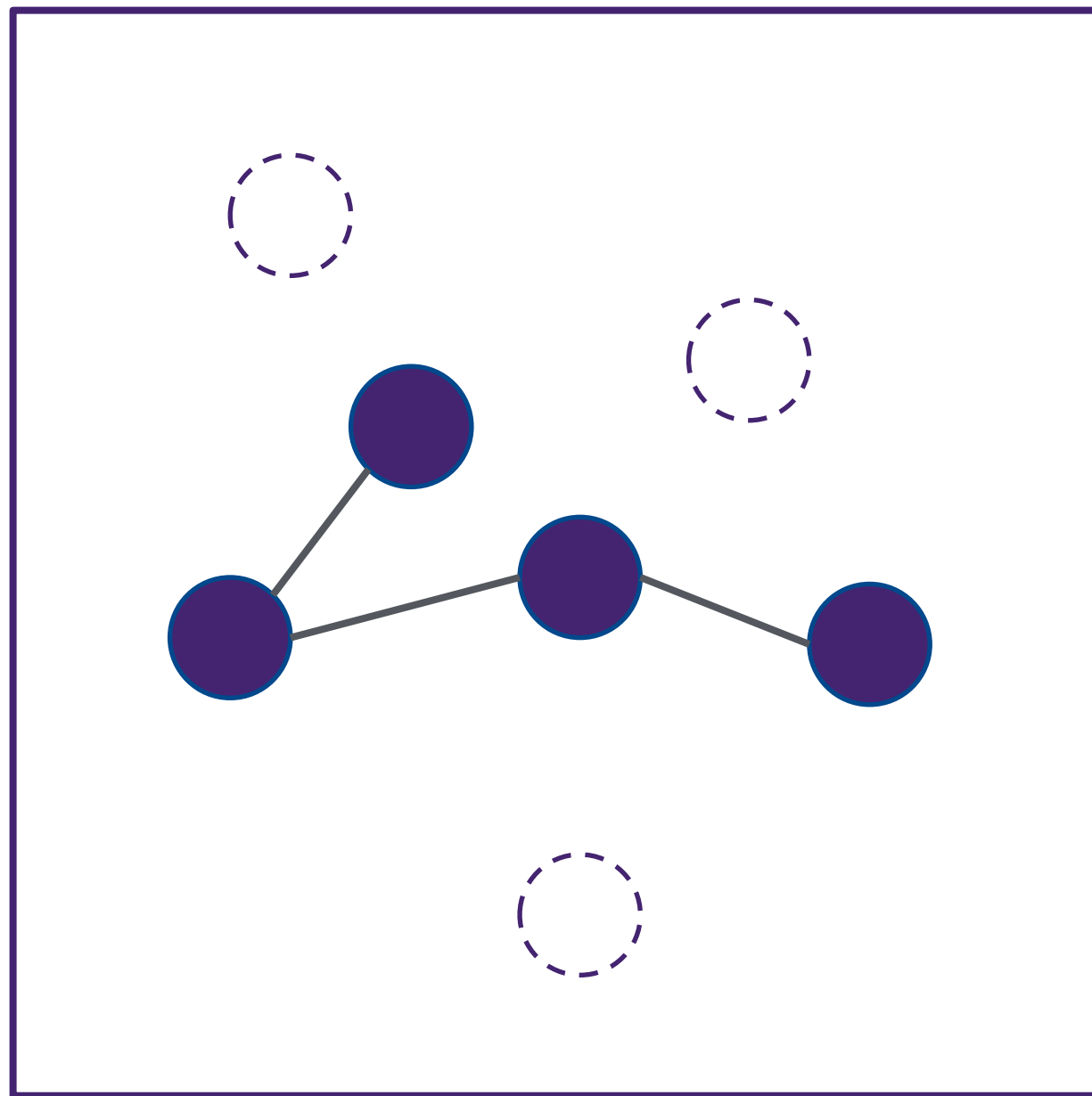
**(1) Initial Representation via MLP**

**(2) Graph propagation and prediction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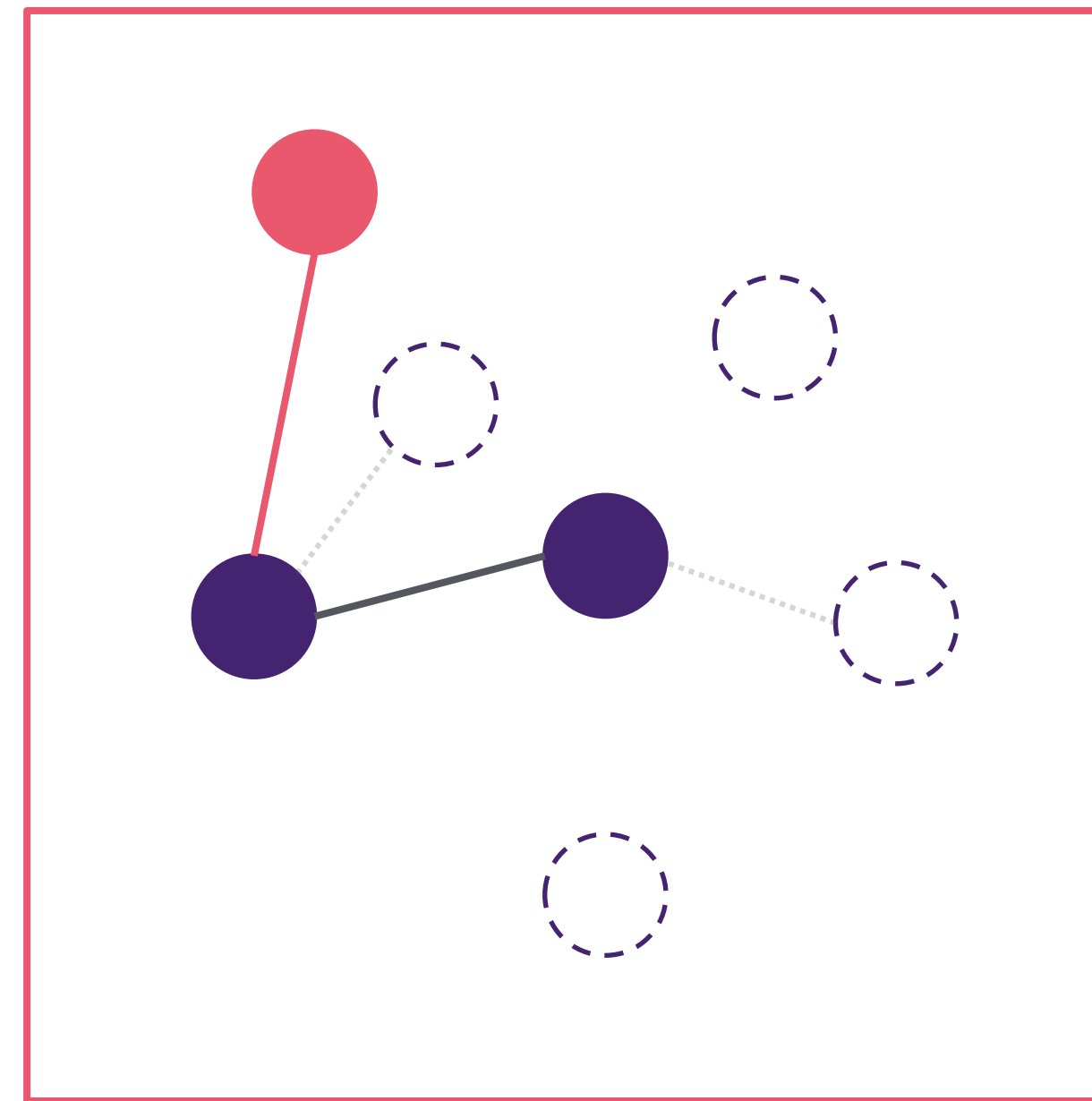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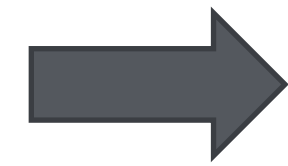
# “연결”을 학습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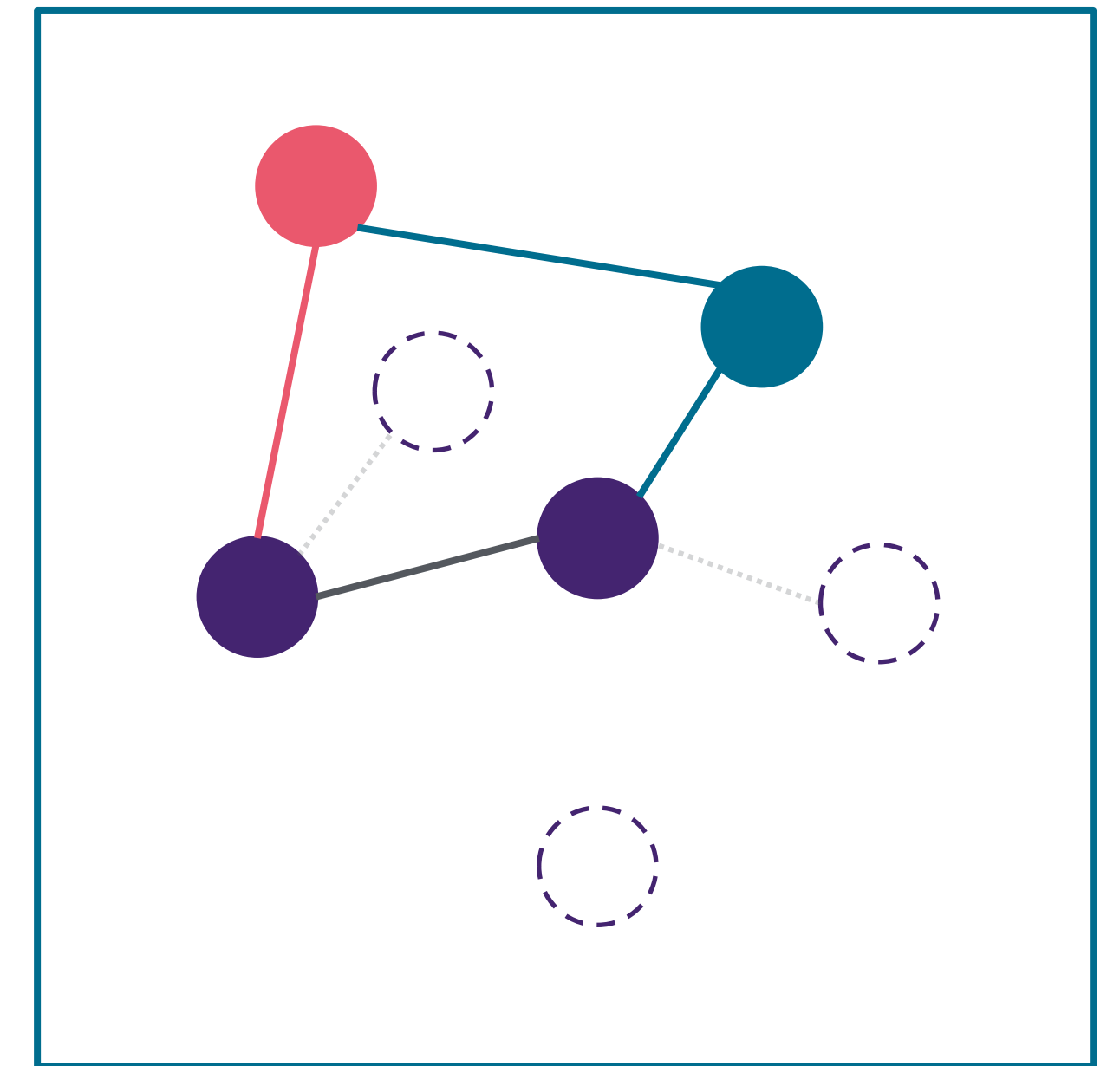
# NEW 사용자/쿠폰에 더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.



Day 1



Day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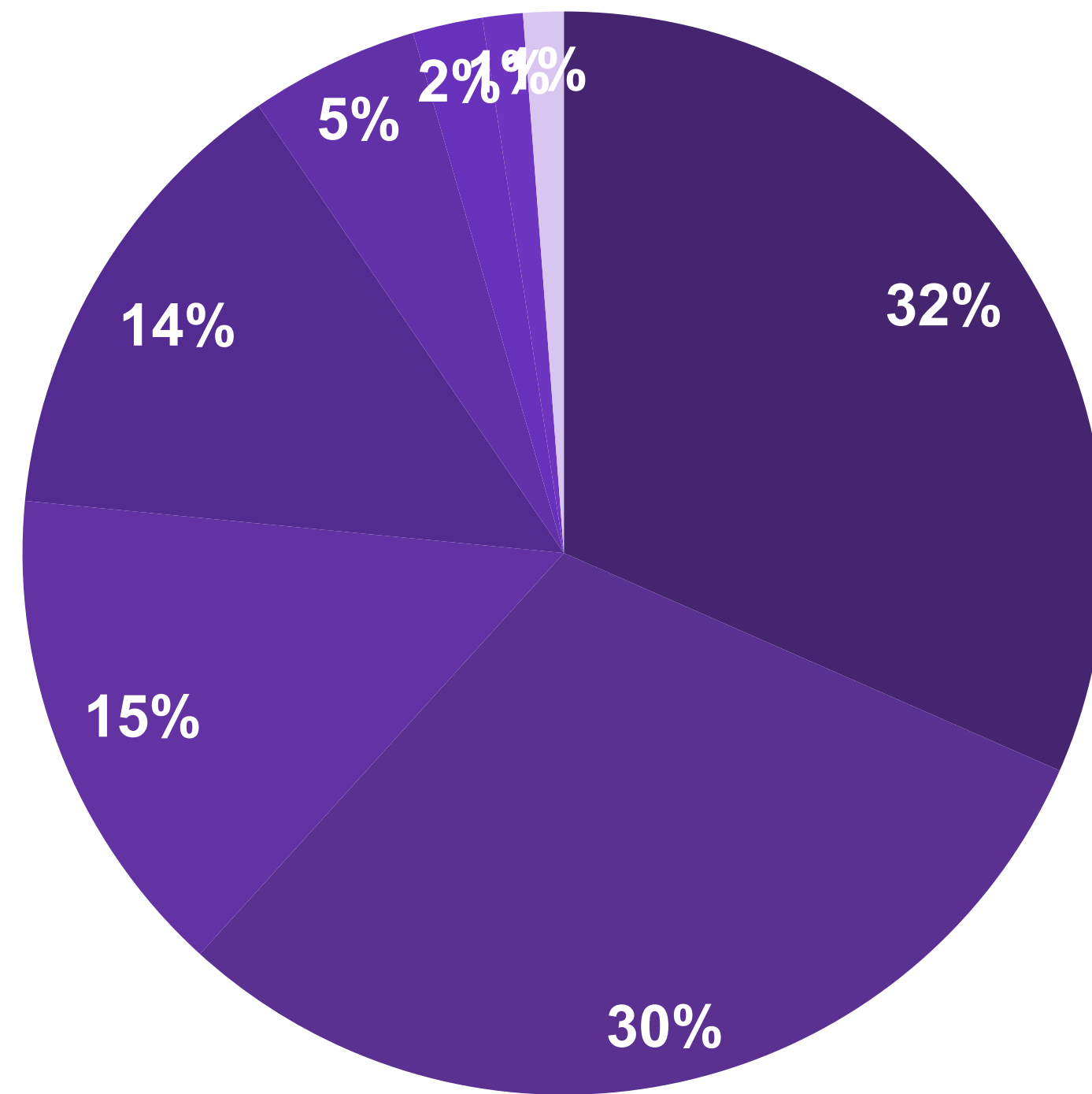


Day 3

**그럼, 추천 성능은?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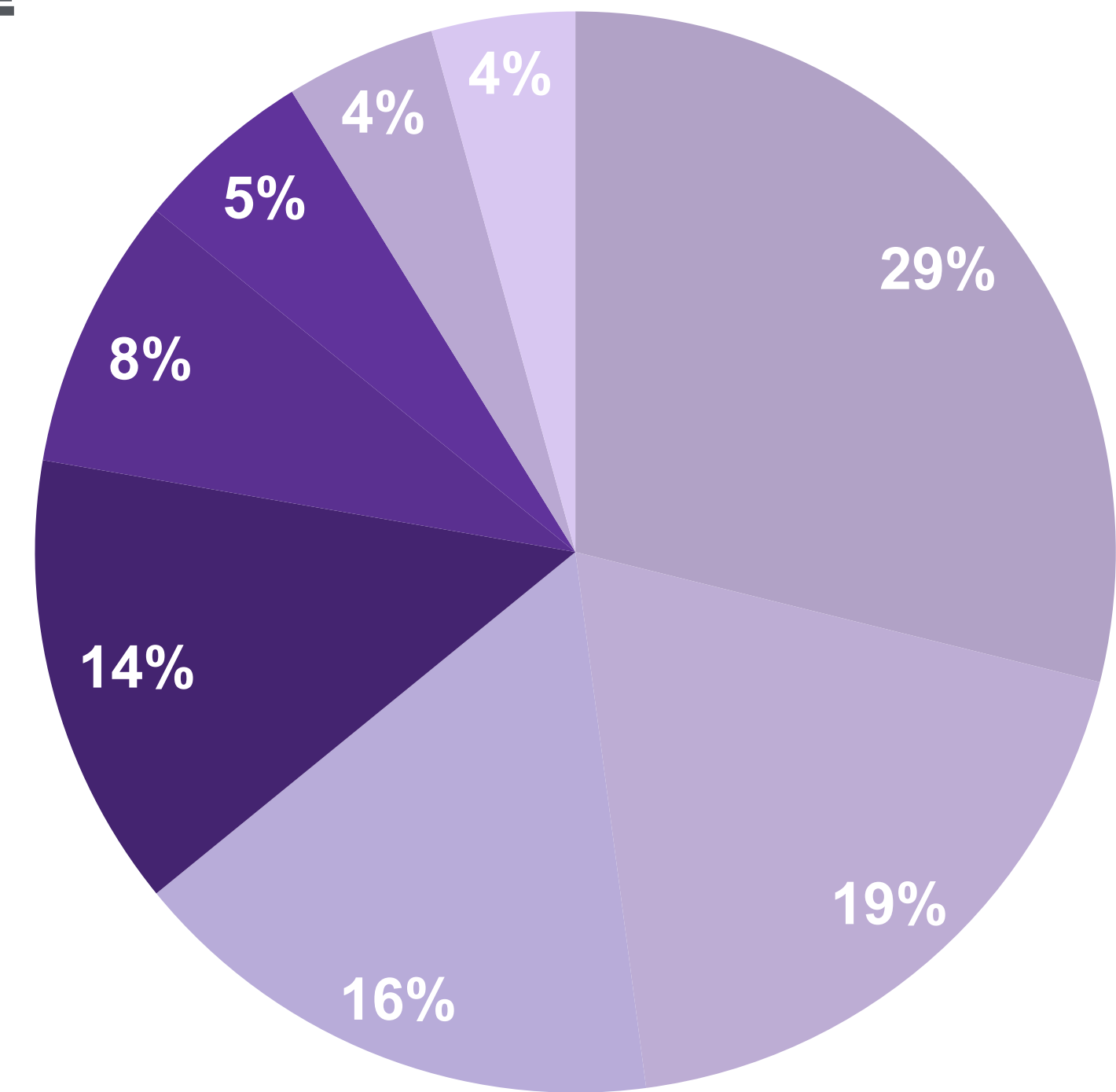
# 추천 결과에서 과거 인기도 비율

## 과거 2주간 인기도



### 비그래프 모델

## 추천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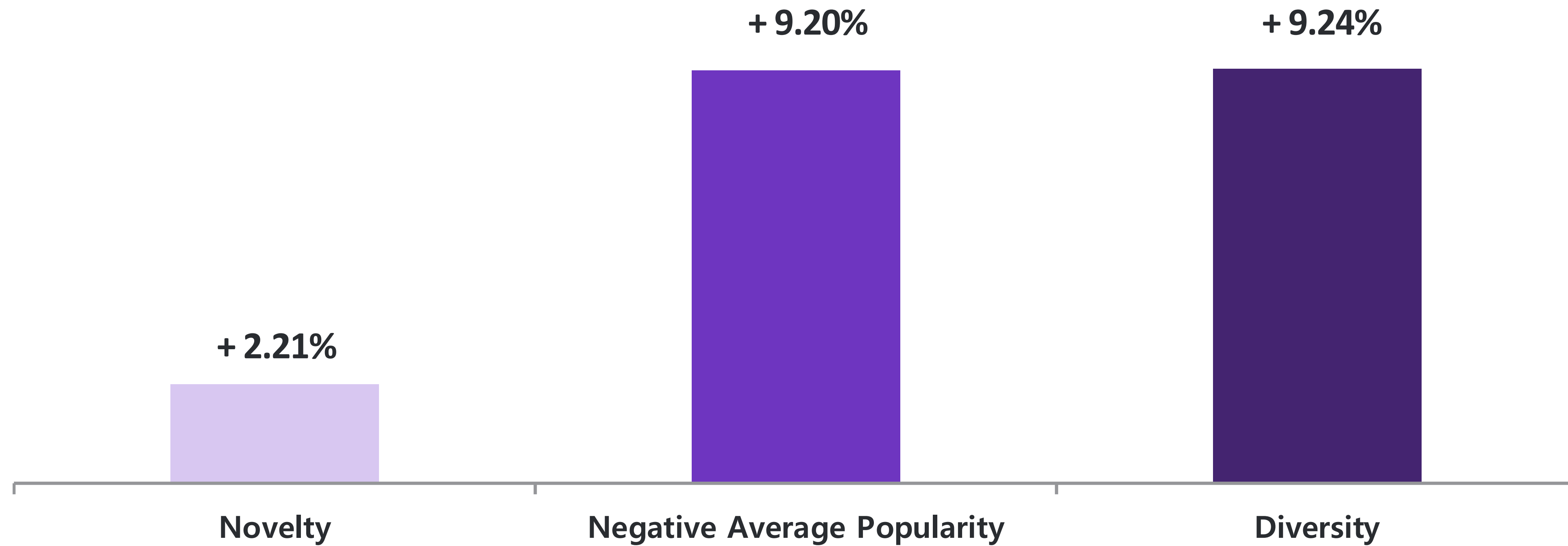


### 그래프 모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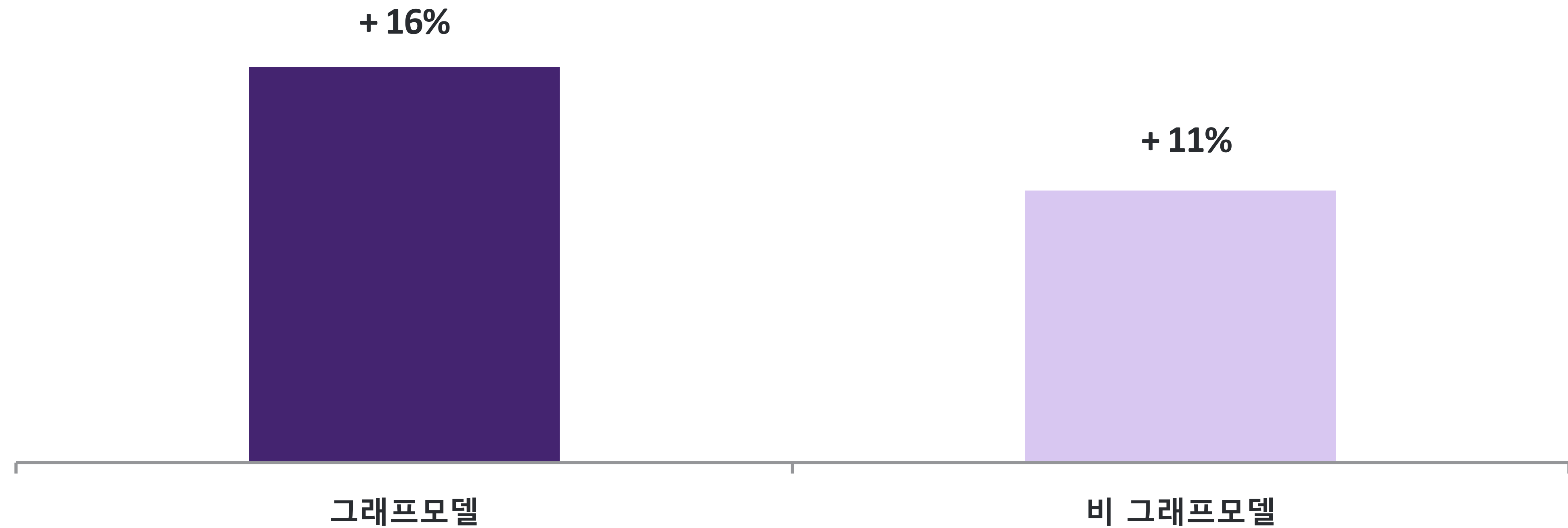
# 추천 성능 – Diversity

비그래프 추천 대비 향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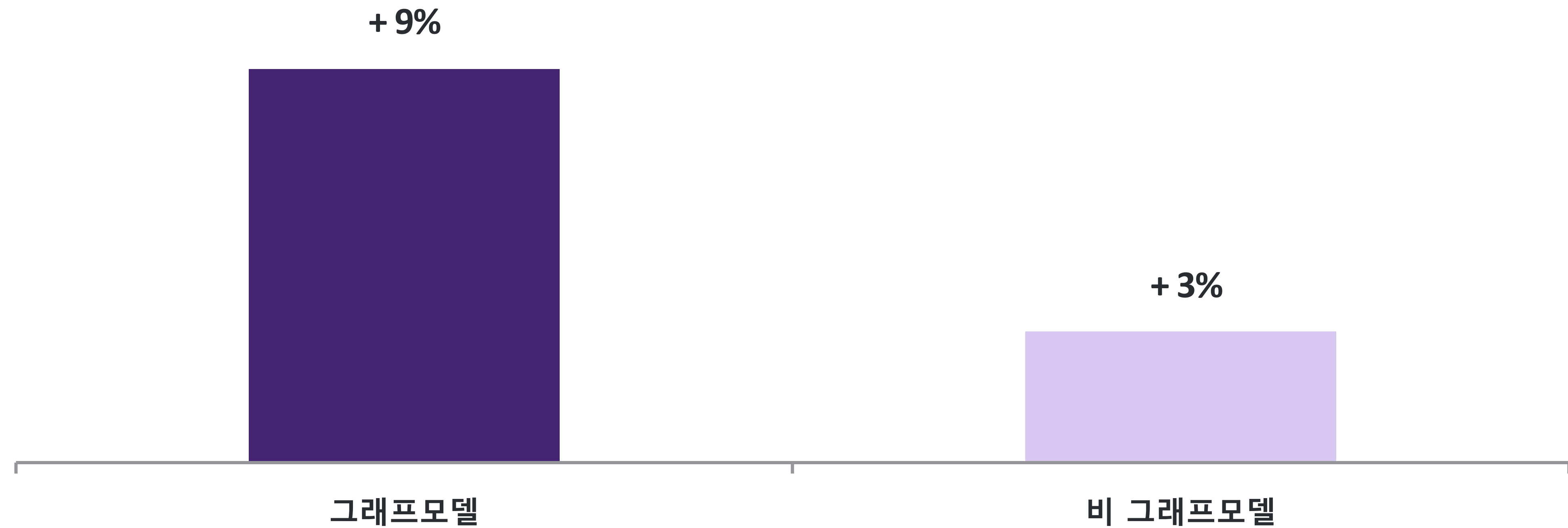
# 추천 성능 - CTR

Top Popular 추천 대비 CTR 향상



# Cold User 추천 성능 - CTR

Top Popular 추천 대비 CTR 향상



# Summary

- GNN 기반 개인화 추천 시스템
- Cold Start 문제를 해결 → CTR과 Diversity



개인화  
추천

Cold Start  
Problem

Graph

- [1] Tripartite Heterogeneous Graph Propagation for Large-scale Social Recommendation, RecSys 2019 Late-Breaking Result**
  
- [2] Graphs, Entities, and Step Mixture, ICML 2020 Workshop on Graph Representation Learning and Beyond**
  
- [3] Hop Sampling: A Simple Regularized Graph Learning for Non-Stationary Environments, KDD 2020 Workshop on Mining and Learning With Graphs**
  
- [4] Multi-Manifold Learning for Large-scale Targeted Advertising System, KDD 2020 Workshop, AdKDD**
  
- [5] div2vec: Diversity-Emphasized Node Embedding, RecSys 2020 Workshop on the Impact of Recommender Systems**

# 4. Counterfactual Evaluation

# 앞선 방법들로 잘 동작하는 모델을 만들었다

우리는 모델을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고 튜닝했다.

하지만,

- 이 모델이 온라인에서 잘 동작할 지 어떻게 알지?
- 만약 온라인에서 잘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지?

# 온라인 - 오프라인 편차

온라인 플랫폼을 서비스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.

오프라인 테스트에서 좋았던 모델이 온라인에 나가면 힘을 쓰지 못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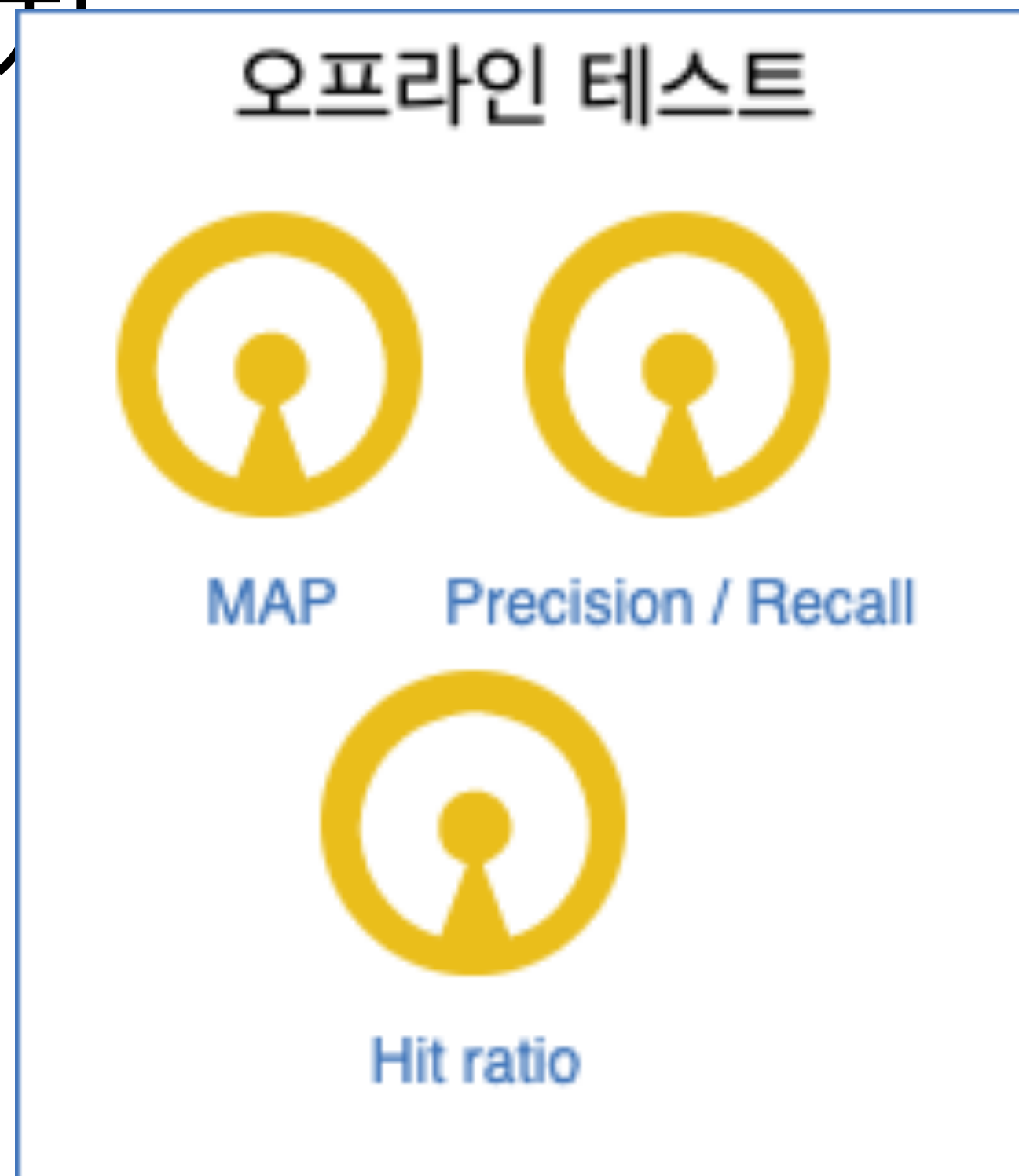
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.

1. 온라인 - 오프라인 테스트의 싱크를 맞추자
2. 온라인에서 직접 좋은 모델을 선택하자



# 온라인 - 오프라인 테스트 싱크를 맞추자

온라인 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아내서,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싱크를 맞추자



# 오프라인 테스트로 온라인 성능 최적화하기

온라인 CTR에 영향을 줄 만한 (cause) 요소를 골라서 테스트해보자

모델	온라인	기존 metric	IPS1	IPS2	IPS3	IPS4	IPS5	CAB
model1	1	3	4	3	4	2	2	1
model2	2	4	5	4	5	3	3	3
model3	3	1	3	5	3	5	5	5
model4	4	2	2	1	2	1	1	2
model5	5	5	1	2	1	4	4	4
Kendall Tau Correlation	N/A	0.2	-0.8	-0.2	-0.8	0.2	0.2	<b>0.4</b>

# 오프라인 테스트로 온라인 성능 최적화하기

이제 보다 온라인 환경에 가까운 모델 평가를 할 수 있다.

- 이를 이용해서 hyperparameter 최적화 등의 튜닝도 가능하다

이렇게 해도 여전히 간극은 있고, 온라인 자체에서 모델 테스트가 필요하다.

# 효율적으로 온라인에서 모델을 테스트해보자

## 추천 시스템 2.0 (A/B 테스트 방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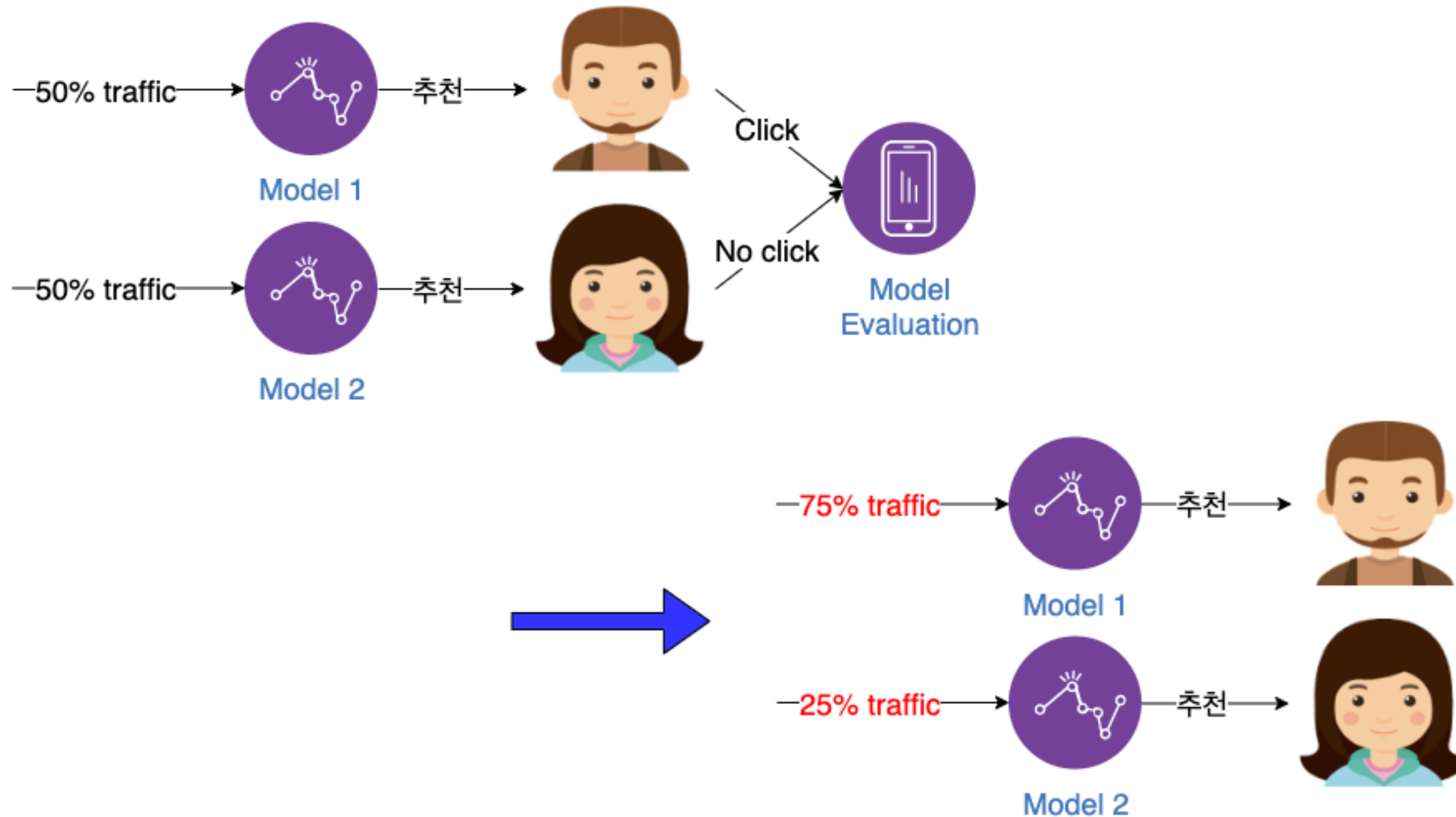
- 하나의 모델을 A/B 테스트를 통해 기존 모델보다 좋은 지 테스트
- 하나의 모델을 점검하는 데 오래 걸림

## 추천 시스템 3.0 (A/B/n 모델 서빙 방식)

- n 개의 모델을 동시에 서빙
- 다양한 최신 모델 테스트
- 그리고, 가장 좋은 모델에게 트래픽을 몰아줘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도 향상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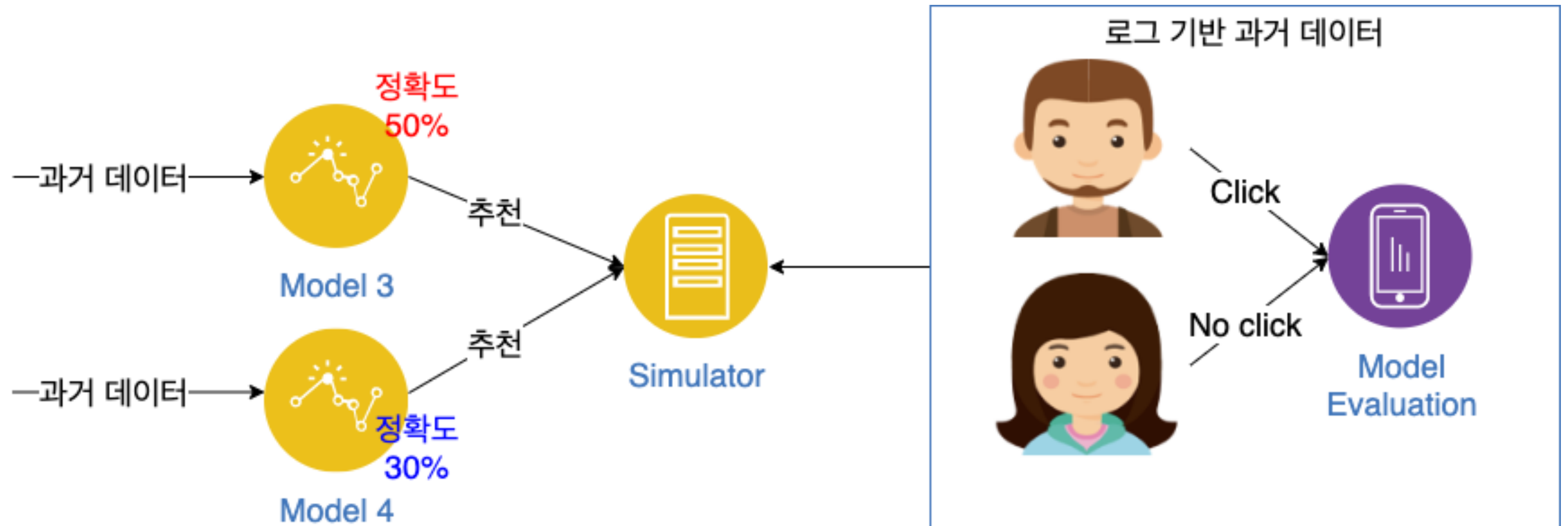
# 온라인 - 오프라인 테스트를 합쳐보자

## 온라인 모델 테스트 (a.k.a 1부리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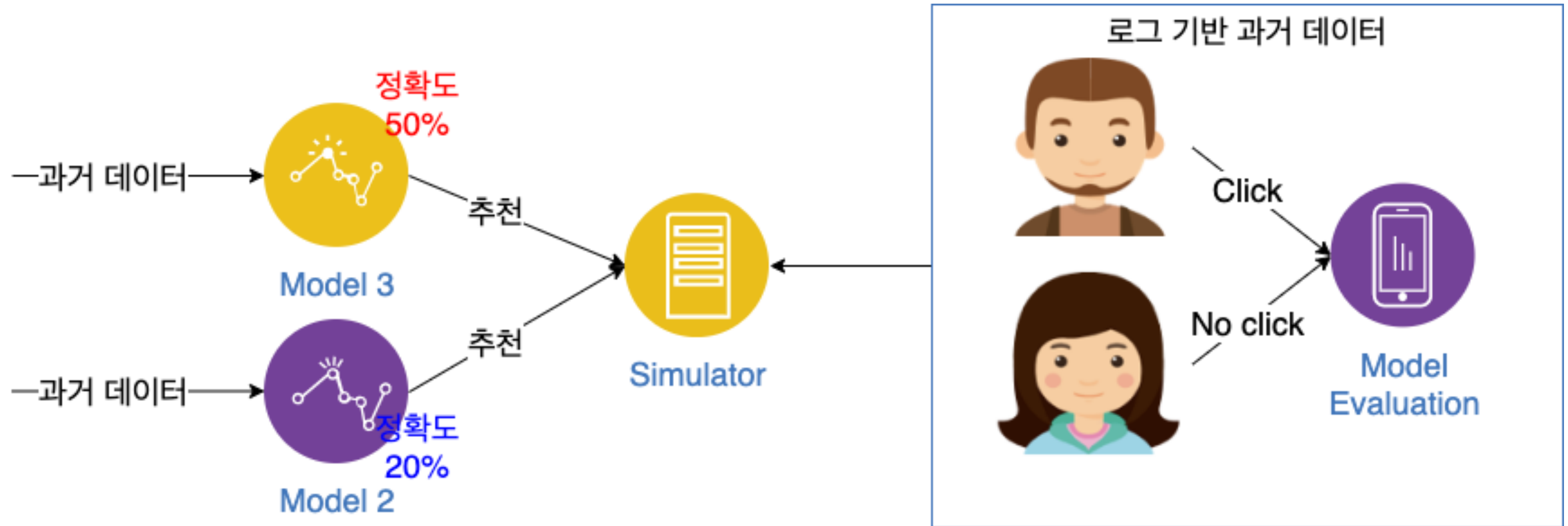
# 온라인 - 오프라인 테스트를 합쳐보자

## 오프라인 모델 테스트 (a.k.a 2부 리그)



# 온라인 - 오프라인 테스트를 합쳐보자

## 모델 업데이트 (a.k.a 승격강등전)



# 마지막으로

온라인 성능을 기반으로 모델 선택 및 hyperparameter 최적화도 할 수 있다면?  
변화하는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는 모델 완성



# 여기까지 오면


모델러가 적당한 구조의 모델을 작성해서 주면, 시스템이

- Causality를 고려한 metric에 맞게 모델을 튜닝해주고,
- 시뮬레이션에서 좋은 모델을 온라인에 서빙해주며,
- 온라인 결과에 맞도록 모델을 다시 튜닝시켜주고,
- 더 좋은 모델에게 트래픽을 몰아줘서 시스템 성능을 높인다.

# 여기까지 오면

- Bias reduction을 통해 사용자가 **진짜 좋아할 것을 추천**하고,
- 그래프를 통해 **새로운** 사용자 / 아이템에도 강인하며,
-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성능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**환경에 적응**하며 운영 코스트를 줄인

추천시스템 3.0 완성!



Q & A



Thank You